

말씀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밤 12

1998

특별 부록 : 어리이랴



K. O. ...

12 1998

5월 12일



표지
 앞표지: 그레그 울슨,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시므온: 화가와 폴 로리다주 베니스 소재 밀 폰드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뒷표지: 제임즈 자크 조제프 티소, 성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어린이란 표지
 그림: 조셉 스틸, 선한 목자, 프로비덴스 리토그래프 컴퍼니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성탄절이란 무엇입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14 질의 응답: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함
로저 에이 헨드릭스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십일조의 법을 준수함
- 26 주님의 약속을 증명해 보임 디어도르 지 발만
- 28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가?" 마크 이 미턴슨
- 30 "너희는 탐내지 말찌니라" 브레트 엘 탐
- 36 우리의 태버내클 합창단 진 피 로울러
- 38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청소년란

- 7 물문 메시지: 가장 훌륭한 성탄절 선물을 구함
- 8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 16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
보이트 케이 패커 회장
- 40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재닛 토마스
- 46 선물 교환 질 테일러

40쪽 참조



어린이란 (별책 부록)

- 2 "땅에서는 평화": 대관장단이 전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성탄절 메시지
- 4 밤이 없었던 그 날 데이블 존스 개보트
- 7 보스의 크리스마스 선물
멜리사 세드릭, 사라 레온 크리스탄슨에게 한 이야기
- 8 함께 나누는 시간: "예수께 오라" 시드니 레이놀즈
- 10 비 제이의 비밀 클레어 미사카
- 13 크리스마스 장식품
- 14 친구 사귀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자녀이나 다 실바 산토스 델빈 리빙



어린이란 2쪽 참조

16쪽 참조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스 이 파
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
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콧,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머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러드

고문: 제이 이 젠슨, 존 엠 매드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엠 나이튼
기획과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말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디앤 워커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매리앤 마틴델
제작 보조: 베스 데일리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겐 가위사키
미술 책임자: 스콧 밴 캄펜
디자이너: 세리 록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즈 커비, 레드 알
피터슨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93호, 제 35권, 제 1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8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간지는 권당 500
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을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
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
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
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영어, 프랑스
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
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세부어, 체코어, 피지어, 길버트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타갈로그
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199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December 1998 vol.35 No.12.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우수한 출판물

저는 레프와르(프랑스어 판)의 우수성에 감
사를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그 가운데
에서도 특히 1998년도에 나온 것들에 감사를 표
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이 아주 멋졌고, 삽화와
사진들 또한 영감적인 기사들이 더욱 돋보였습
니다.

질의 응답란을 다시 마련해 주어서 감사합니
다. 1998년 2월호에 실린 "인간 아담"과 "나 의
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라는 두
기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크 데미에레

무스프롱 와드

프랑스 릴 스테이크

열성적인 독자

저는 수년 간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의 열렬
한 독자였습니다. 저는 1972년에 침례 받은 이
래 줄곧 리아호나를 모아 왔습니다. 저는 이 잡
지에 대해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한 1998년도 맬기세텍 신권 및 상호
부조회 교과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주 안식일 공과는 고든 비 힝클리 대판장
과 그 외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 말씀들로 구성
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고의 말씀은 우리 생활
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카르멘 테 데 루시타

엘 마르쿠스 와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스테이크

여행하는 동반자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저의 훌륭한 여행

동반자입니다. 저는 직업상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이 잡지를 통해 한층 더 즐거
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 계
신 형제 자매들에 대해 알게 될 때마다 큰 기쁨
을 느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베아트리스 부스타만테

쿠아우트모코 와드

멕시코 치와와 추비스카르 스테이크

행복을 함께 나눔

리아호나(영어 판)는 제게 기쁨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리아호나를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
아집니다. 학교에서 저만 유일하게 교회 회원인
데, 이 잡지에 나오는 복음 메시지를 받들들과
그 외 친구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마리든 아라나스

나가 지부

필리핀 탈리세이 스테이크

우리의 살아 계신 예언자로부터 온 메시지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받을 때마다 저는
힝클리 대판장과 그 외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이 메시지와
기타 기사들은 힘을 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
지께서는 제 삶을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
다. 저는 이 교회가 그분의 참된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아나 마라 마르테네스 톨라노

올드 타운(스페인) 지부

버지니아 주 마운트 버논 스테이크

[편집자 주: 저희는 여러분이 편지나 기사,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보내 주시길 원합니다. 여
러분의 모국어로 기사를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성명, 주소, 그리고 와드와 스테이크
또는 지부와 지방부 명칭을 적어 주십시오. 보
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성탄절이란 무엇입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지금은 연중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근원은 단순하지만 의미는 매우 깊으며, 그 전통이나 관습은 아름다우면서 많은 추억이 있고 또한 사랑의 정신이 충만한 때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잡아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환희의 절기는 우리가 마음과 느낌과 행동을 성탄절의 정신에 어느 정도 조화시키는가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행복을 안겨 줍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은 시장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탄절의 참의미를 모를 겁니다.
그것이 마음 안에 있지 않다면
종소리는 흰 눈 사이로도 들릴 겁니다.
오, 하지만 마음은 그 감동을 놓쳐 버릴지도 모릅니다.
성탄절이 그 안에 있지 않다면

성탄절은 어린이와 같음

젊은 시절 저는 장로로서 솔트레이크시티 노스탤플가에 있던 프라이머리 어린이 병원에서 부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곳엔 축복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때는

여러분과 저는
이번 성탄절 때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그분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도록 합시다.

성탄절 절기였습니다. 저는 전에 그 어린이 병원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병원 로비로 들어서는데 아주 멋지게 장식된 성탄절 트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뭇가지 밑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는 순간 동정심이 솟아났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다리나 팔에 큰 석고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무척 허약하고 창백했습니다.

한 꼬마가 큰 소리로 우리에게 “저를 축복해 주시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중병에 걸려 있던 그 착한 소년의 헝클어진 머리 위에 제 두 손을 얹었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병상을 떠나려 하는데, 소년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몬슨 형제님.”

우리는 “아 참, 몬슨 형제님,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세요.”라는 소년의 외침을 뒤로한 채 그 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그를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성탄절기에만 오는 기쁨을 느꼈던 것입니다. 소년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권을 인정했습니다. 신앙 역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땅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착한 소년에게서 그러한 기쁨이 흘러나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탄절의 영이었습니다. 왜 다른 어떤 때보다 이 절기가 되면 평강이 더욱 가까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또한 왜 이 절기가 되면 더 많은 친구들이 떠오르며, 미운 사람들을 전보다 더 많이 용서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탄절의 영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

1년 전 우리는 1847년에 개척자들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에 도착한 것을 기리는 150주년 기념 행사에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탄절은 어떠했을까요?

레베카 리터 부인이 1847년 12월 25일에 쓴 일기의 앞부분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혹한의 겨울. 성탄절이 되었지만 아이들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었다. 평원을 건너가 밀을 좀 가져다 장작더미 밑에 감추었다. 아기에게 조금이나마 밀을 요리해서 먹일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봄이 되면 밀을 파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는 수 없이 그것을 그대로 두어야 했다.”

성탄절은 베푸는 것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반지나 그 외 보석들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빙자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대의 일부만이 [진정한] 선물이라 할 수 있다.”(“선물”, 랄프 왈도 에머슨 전집[1929년], 286쪽)

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행복은 남을 행복하게 했을 때만 다가옵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 그것을 잃는 구세주의 교리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성탄절의 정신은 곧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을 형제애와 우정으로 불타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봉사라는 친절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에 따름으로써 ‘땅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선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복음 이상[1954년], 551쪽)

몇 년 전 저는 인정 많은 익명의 치과 의사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그분은 형제애와 선의를 잘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편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몬슨 부대관장님께,
“부대관장님께 좀더 일찍 감사의 글을 보내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저는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부대관장님은 최근 구입한 자동차 등록비가 없어 곤란한 나이 드신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그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



R.T. BARRETT

그림: 로버트 티 바렛

“저는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스트레스와 삶의 무거운 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그 작고 보잘것없는 친절 하나 때문에, 그녀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아마도 몇 년 간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거의 없었나 봅니다.”

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모임이 있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저희 직원이 제게 자신이 아는 사람 하나가 병원에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치아 두 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자신이 그녀를 잘 안다면서 그녀의 치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은 많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맡아 하던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었고, 가족의 짐세는 세 달이나 밀린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거의 성인인 딸이 다녔이나 있었지만, 개인적인 경제 사정 때문에 다시 집을 꾸러 집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의지로 모든 가족의 살림을 한 동안 그럭저럭 꾸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치아 두 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부인은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여 자신의 치아 문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치료비를 조금 늦게 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가족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 보니 최근에야 그간 밀린 돈을 갚기 시작했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신용 상태를 모두 믿는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개의 상한 치아 중 하나만 고쳐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좋다고 확신시킨 다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날 이후 저는 치아 둘을 다 고쳐 주었고, 그녀는 고마워했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저는 부대관장님의 영적 말씀을 떠올리면서, 괜찮다면 성탄절 선물로 치료비를 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스트레스와 삶의 무거운 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그 작고 보잘것없는 친절 하나 때문에, 그녀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아마도 몇 년 간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거의 없었나 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를 거들던 직원들이 그녀의 반응에 모두 감동해, 그들 또한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

쁨을 느꼈습니다. 우선 이처럼 단순한 행동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두 번째는 난생 처음으로 제 병원에 고통이 아닌 기쁨을 갖고 온 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복음 안의 형제로부터.”

성탄절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

주님의 탄생 전날, 그분의 음성이 니파이에게 임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왔음이라. 오늘 밤으로 표적이 보일 것이요,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로 세상에 전하게 한 말을 이루어 보이리이다.” (니파이삼서 1:13)

예전의 거룩한 선지자들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700년도 훨씬 더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한편 미대륙의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러 멀지 아니하여, 과거나 현재나 … 전능하신 주님께서… 홀로 지어낸 장막에 거하시며… 시험을 받으며 육신의 고통[을 겪으며]… 저는 하나님의 아들, 태초로부터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늘과 땅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이르러니”(모사이야서 3:5 7~8)

그리고는 바로 역사적인 날 밤이 되어, 목자들이 들에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저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투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11)

목자들은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서둘러 마굿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후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다

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태복음 2:2, 10~11)

그 때 이후로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주는 정신은 각 기독교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중하신 아들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무덤을 이기는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번 성탄절 때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자 구세주이신 그분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도록 합시다. [경전은] 그분에 대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사도행전 10:38)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성탄절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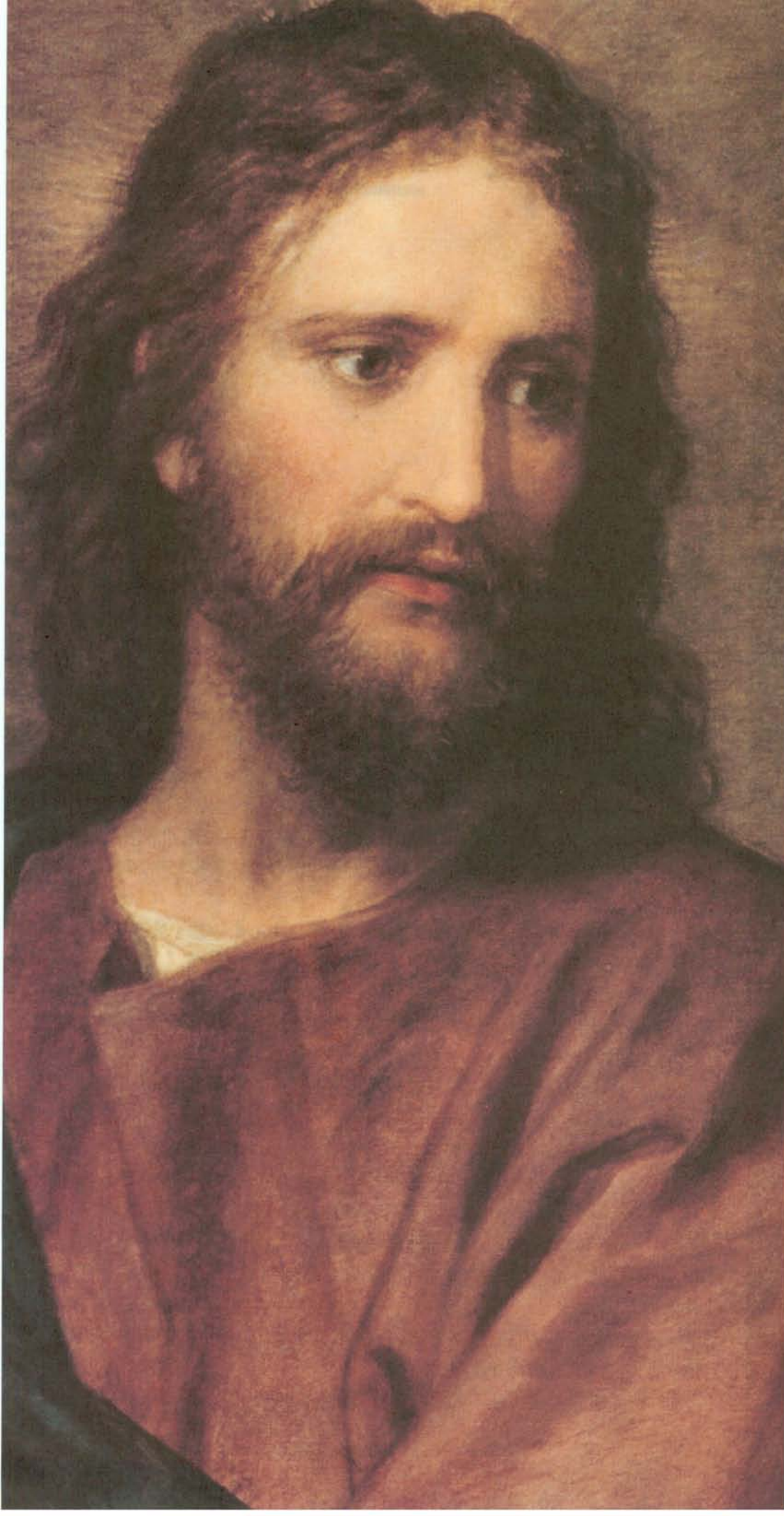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성탄 절기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과 느낌과 행동을 성탄절의 정신에 얼마나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2. 성탄절의 정신은 어린이들에게서, 지난 추억을 되새기는 일에서, 베푸는 것에서, 그리고 그 본래 의미 즉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상기하는 가운데 확인할 수 있다.

3. 우리 모두 이 절기에 주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감으로써 그분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도록 한다.

4. [경전은] 그분에 대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할 때 성탄절의 영은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물론 메시지

가장 훌륭한 성탄절 선물을 구함

올해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열중하지 말고 구세주를 여러
분의 진치에 초대하십시오. 그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사야 9:6 참조)

그림: 헤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부유한 젊은 관원의 일부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यो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 이에 무리가 앞으로 나아가 ... 저들의 눈으로 보며 친히 만져 보아 진실로 저가 예언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분이심을 알아 증거하였으니.

무리가 ... 친히 목격하고 나서 한 소리로 높이 부르짖어 이르기를,
호산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리로다(니파이삼서 11:14~17)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서반구의 주민들은 한 사람이 하늘에서 하강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음성을 들었다.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니파이삼서 11:10) 그분은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스스로 그분에 대한 증거를 얻으라고 권유하셨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은 권유를 하고 계신다.

다음 몇 쪽에 걸쳐 전세계 청소년들은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으라는 권유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 또한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내게 이르는 자를 불과 성령으로 침례할 것이요(니파이삼서 9:20)

저들이 모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신이 저들 위에 내리매 저들이 불과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며(니파이삼서 19:13)

"저는 열 여섯살 난 제 친한 친구 베라에게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신앙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왜 말일성도들은 홍차와 커피를 마시지 않으며 그 친구가 일요일마다 세 시간씩 가 있는 곳이 어딘지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베라에게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침례받았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해 보였고, 저는 친구들과 선교사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후 네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침례받은 후 변화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되돌아보

의 증인

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침례 당일 저는 영을 느낄 수 있었지만, 감정이 많이 동요되면서 다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화평하고 조용한 가운데 영의 영향력을 느끼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 즉 구세주를 믿는 신앙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베라 테레코바

바실리오스트로프스키 지부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서 지방부

러시아

“때때로 우리는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길 원하고,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할 경우 간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베냐민 왕이 고별사를 했을 때 백성들은 영으로 충만해졌고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모사이야서 5:2 참조) 변화를 원하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선악을 인식하여 선을 택하게 됩니다. 또한 평강과 행복을 느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이 생깁니다. 우리는 엘마가 설명한 사실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희의 이해가 밝혀졌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엘마서 32:34)

“우리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모임에서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 아니면 인생을 즐기며 살 때 등 어느 순간에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화평과 사랑은 구세주로부터 옵니다.”

알렉산드라 라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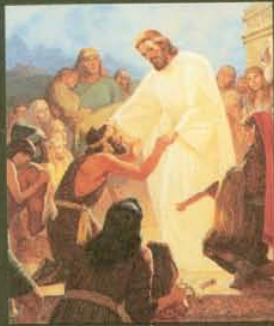
리도 지부

칼리 스테이크

콜롬비아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서시어 은총을 베푸시며, 무리와 제자들에게 명하사 다시 땅에 무릎을 꿇으라 하시고,





증인의

저들이 모두 땅에 무릎을 꿇자 예수께서 저들에게 명하사 기도하게 하시니...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어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하시었고, 저들이 또한 그치지 않고
 기도하니(니파이삼서 19:15~17, 26)

"선하게 되는 것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따금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은 난관에 처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저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곁에 계시면서 저를 인도하시고 위안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저는 순종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배운 것들을 생활에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일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빈 엠 감보아
 마판단 와드
 산 파비안 스테이크
 필리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재하시는지 완전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고 물을 때면 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에 대해 참된 간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가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실행했고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길 원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면서 제 삶이 달라졌으니까요."

셜리 엘바레즈 베가
 엘 소코로 지부
 카르타지나 엘 보스퀴 지방부
 콜롬비아

베라 테레코바



알렉산드라 라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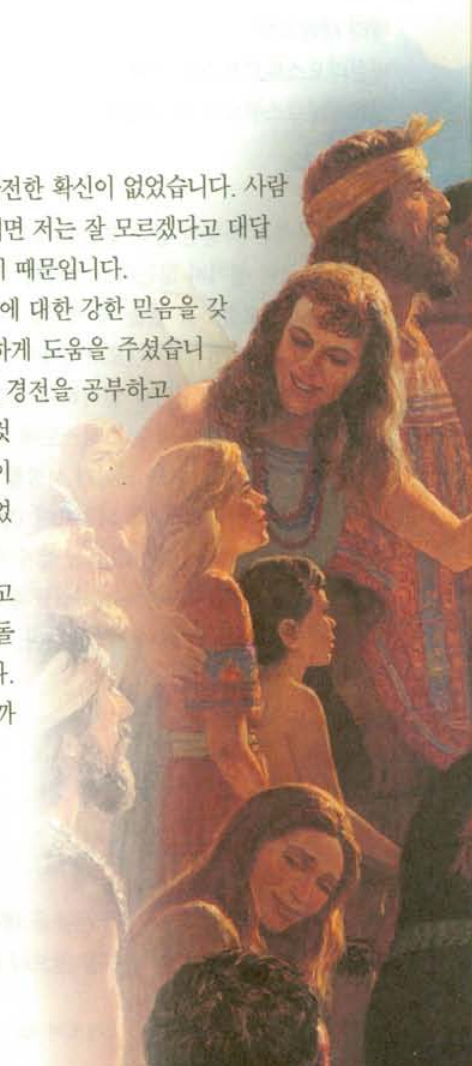
마빈 엠 감보아



셜리 엘바레즈 베가



(왼쪽 위) 그림: 제리 엠 켈. 그리고 그가 모든 시련을 고쳐주시리라. (오른쪽) 그림: 제리 엠 켈. 그들이 함께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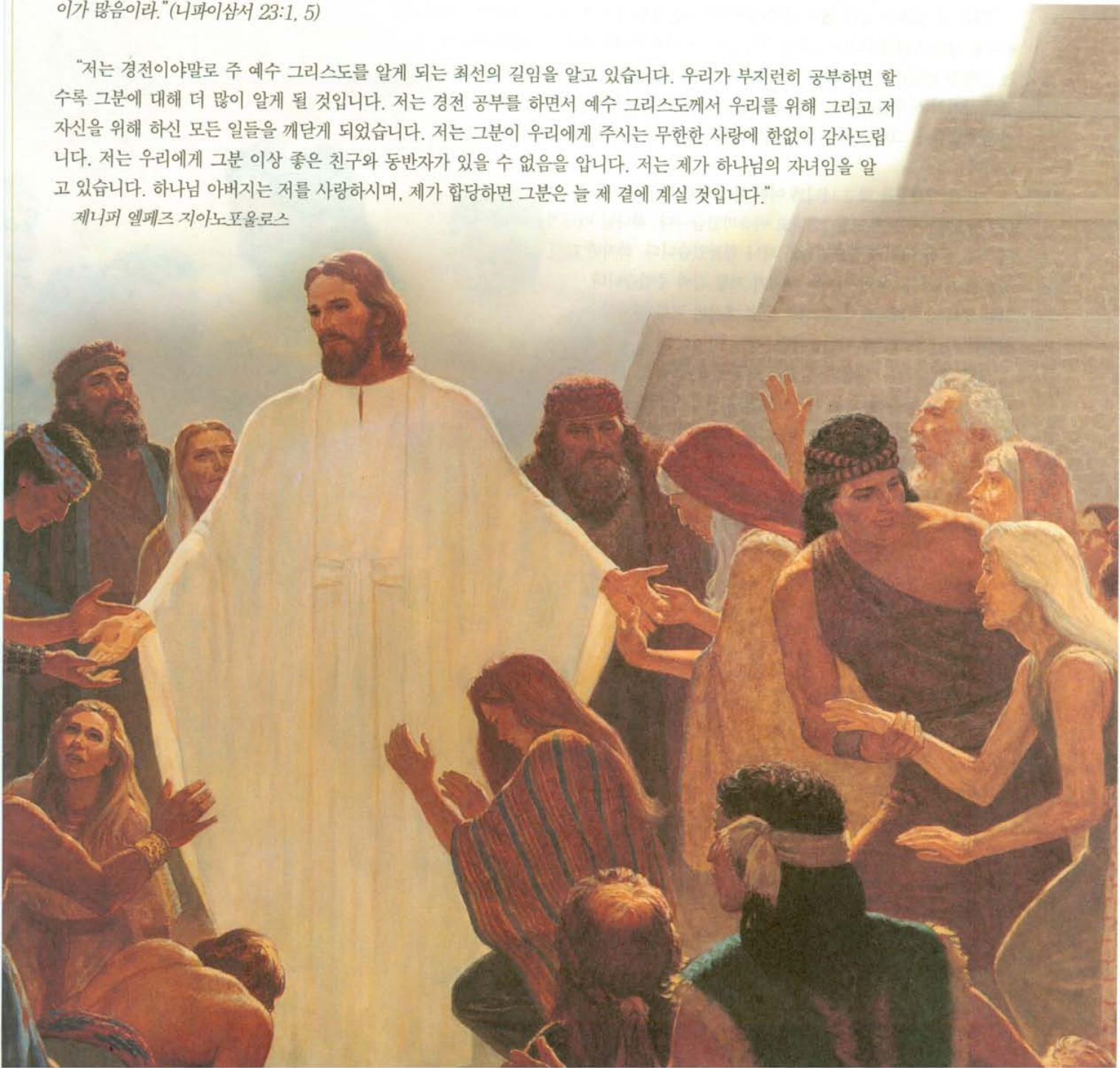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말씀을 상고하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 명하노니, 너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라...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회개하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선지자의 말을 상고하라. 이러한 것을 증거한 이가 많음이라."(니파이삼서 23:1, 5)

"저는 경전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최선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면 할수록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경전 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분 이상 좋은 친구와 동반자가 있을 수 없음을 압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며, 제가 합당하면 그분은 늘 제 곁에 계실 것입니다."

제니퍼 엘페즈 지아노포울로스



퀴티에레즈 자모라 와드
파판틀라 스테이크
멕시코

“저는 열 일곱살 되던 해에 세미나리에서 몰몬경을 공부했습니다. 애초엔 세미나리를 이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교사님의 공과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무엇을 읽었는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몰몬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결심한 대로 몰몬경을 끝까지 다 읽으려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의 인도를 받아 몰몬경 읽기를 매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길 7개월을 하고 나니까 어떤 한 특별한 성구가 마음에 크게 다가왔으며, 저는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처음 운을 띄워 말씀드리기가 꽤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동안 따뜻한 훈기가 저를 감싸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말을 듣고 계시며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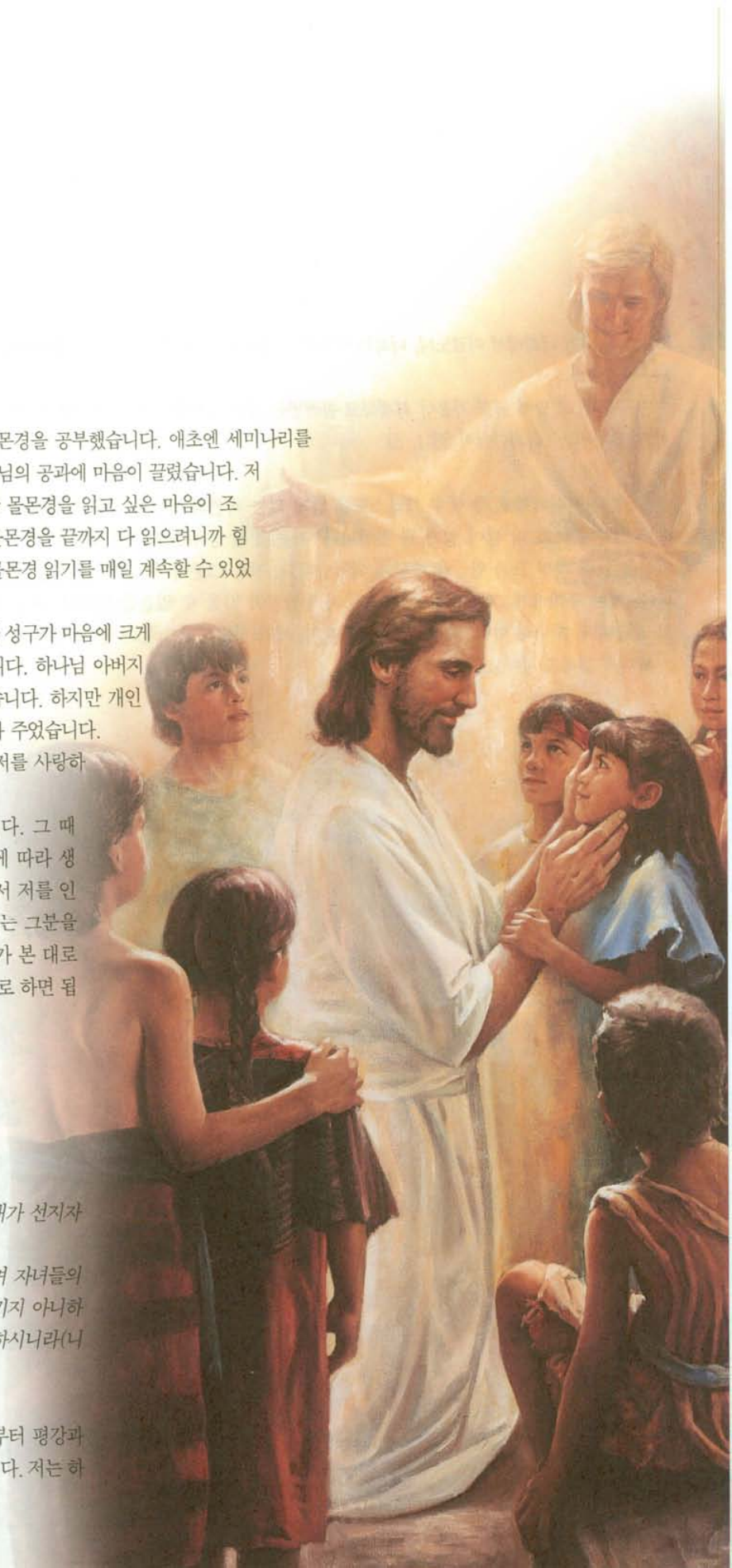
“몰몬경 읽기는 개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때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날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면서 모범이 되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되며, ‘내가 행하는 바를 너희가 본 대로 너희도 행하라’ (니파이서서 31:12)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니콜라스 빌링스
노장 와드
파리 동 스테이크
프랑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저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도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니라(니파이삼서 25:5~6)

“저는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 갔을 때 처음부터 평안과 평온함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



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강한 간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성전에서 봉사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모든 면에서 강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시련이 올 경우 제가 해야 할 몫은 다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민다 데미스

라 트리니다드 제2 와드

바키오 스테이크

필리핀

"부모님은 제게 기독교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 가족은 함께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철학자들의 작품으로 제 내부에서 느끼는 공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제 누이가 선교사들을 소개해 줄 때까지 채워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가 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쌓아 둔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복음을 공부하고 침례받기로 결심하면서, 저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도덕적이고 영적인 원리들이 제 마음 깊숙이 늘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부모님이 제게 가르치시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코라도 캠퍼시

알레산드리아 지부

베르첼리 지방부

이태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다. "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간증할 수 있듯이, 여러분 또한 그에 대해 간증할 수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마음으로 간증할 충분한 권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한 간증을 분명히 지니고 있듯이 여러분 역시 이미 갖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간증을 지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 명상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한다면, 주님의 사업에 봉사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일, 즉 그분의 사업의 참됨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 서실 것입니다." ("영감적인 생각," 성도의 빛, 1998년 11월호, 3쪽)

이번 성탄절기 동안 우리는 여러분이 구세주 관한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얻고 강화시키며 함께 나누려는 힝클리 대관장님의 권고에 따름으로써 그분의 탄생을 경축하길 바랍니다. □



제니퍼
엘페즈
시아노포울로스



니콜라스
벨링스



민다
데미스



코라도
캠페시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함



로저 에이 핸드릭스

현대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지 일천 팔백 삼십 년이 되는”(교리와 성약 20:1) 1830년 4월 6일에 조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일성도들이 12월 25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는 한 구태여 교회 회원들이 기존의 기독교 휴일을 거스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통적인 날짜를 아무 부담 없이 지키는 데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 스미스는 휴일인 12월 25일의 종교적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학교 기록들을 보면 1840년대 초 나부에 살던 말일성도 어린이들이 12월 25일에도 학교에 갔음을 알 수 있지만, 성탄절이 종교적인 축제의 측면을 띠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843년 12월 25일 예언자는 성탄 축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에 새벽 한 시경 잠에서 깨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한밤에 집 밖에서 들려 오는 이 “하늘의 음악”을 통해 “큰 기쁨”을 느꼈고 그는 이 방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한 사람들을 축복했”(교회 정사 6:134)습니다. 그날 저녁 예언자는 또 다른 경축 행사들도 즐겼습니다.

두 번째로, 말일성도들은 회복의 메시지에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세주의 거룩한 탄생과 사명에 대해 간증을 갖는 것과 그리스도의 현신적인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강조해서 볼 때

1800년대 말에 들어 성탄절이 점차 종교적인 휴일의 색채를 띠게 되자, 교회 지도자들이 4월 6일이라는 날짜를 크게 홍보해 가면서 까지 굳이 그것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은 실제 발생한 때와는 다른 날에 기념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 가운데 독립 선언서가 서명된 날을 7월 4일로 기념한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날은 선언서가 승인된 날이고, 실제로 완성된 서류에 서명이 된 시점은 이로부터 한 달 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보다는 근본 취지입니다. 즉 기념하는 정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정확한 날짜에 기념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리와 성약 27편 1절에도 또 하나의 선례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성찬의 상징으로 무엇을 사용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그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한” [무엇을 먹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같이 받아들이시라고 생각해도 불합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브르스 알 맥쿱키 장로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틀림없이 4월 6일(교리와 성약 20:1 참조)에 해당하는 날에 탄생하셨다. 하지만 성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한데 어우러져 성탄절을 기념한다. 그들에게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참된 영을 새롭게 구하며, 불멸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탄생에 관한 참된 교리에 다시 한 번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이상적인 기회가 되고 있다.”(몰몬 교리, 2판(1966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세주의 거룩한 탄생과 사명에 대해 간증을 갖는 것과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132~133)

그렇듯이 우리가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하고 그분에 대한 헌신을 분명히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 취지가 정확한 날짜와 일치해야 한다고 하는 계시가 주어진다 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계시에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까지 우리가 예전대로 기독교 성탄절을 기념해도 주님은 용납하실 것 같습니다. □

이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들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기 위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보다 더 나은 접
근 방법은 가르치고,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로 남는 것이다.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1998년 2월 1일 브리감 영 대학교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행하신 말씀

저는 이 모임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제가 드려야 할 메시지의 성격상,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깊이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예언자 모로니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나는 교회에 속해 있어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모로니서 7:3)었다고 말씀하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화평한 중에 행하는 것”(모로니서 7:4)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고심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거의

한 적이 없는 어떤 일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전할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며 우리 회원들 역시 그리스도 교도가 아니라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때로는 그런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듯한, 다시 말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저보다는 혈기 왕성한 여러분께서 더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불공정하며 기독교적인 박애 정신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고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마찰을 빚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진리를 가르치며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로 남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기독교를 그들 스스로 고안

한 기독교인 틀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들 식의 기독교도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면, 함께 이치를 논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정당화시키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가르치고 설명하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독교도인지 혹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일을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적은 다음, 이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든 거부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라면 그들 스스로 분명히 설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령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해 전혀 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찬송가 중 하나를 보고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걸 발행했지? 대체 그들은 누굴 믿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는 아마 우리 찬송가 책이 그리스도를

10월 10일

10월 10일

증거하고 찬양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상당수는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생각하오니" (찬송가 104장), "주님은 내 목자니" (찬송가 99장) 외에 30곡이 넘는 애창곡들이 우리 찬송가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100곡도 더 되는 찬송가가 말일성도에 의해 씌어졌으며, 그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곡들은 경배의 영으로 우리의 구속주이신 주님의 성역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우리 죄를 위한 희생과 부활과 속죄와 승천하심을 찬양합니다.

물론 이 찬송가들은 비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것들은 헌신적이며 진정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자 구속주이신 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신앙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몇몇 찬송가에서 뽑은 가사들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곡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팔리 피 프랫 장로가 쓴 "구유에서 나신 주" (찬송가 121장)로서, 마크 홀 형제가 노래를 하고 허버트 클로퍼 형제가 반주를 하셨습니다.

구유에서 나신 예수
영광 중에 오시네
한때 수난 겪으신 주
세상 다스리시려
이제 다시 오시네

은유하신 어린 양
위대하신 여호와
십자가 달리신 주
구름 마차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시네

피땀 흘려 번민한 주
영화롭게 오시리
한때 배척당했으나
이제 임금되심을
세상 알게 되리라 (찬송가 196장 1~3절)

다음 가사는 일찍이 상호부조회 회장을 역임한 엘리사 알 스노우 자매가 작사한 "구세주 돌아가셔서" (찬송가 1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노래는 김벌리 홀 자매가 맡았습니다.

구세주 돌아가셔서
울법을 이루셨으니
죄 위한 죽음이었네
사람들 살리시려고
죄 위해 돌아가셨네

예수님 운명하시니
하늘이 빛을 숨기며
온 세상 진동 일어나
자연도 한숨 짓기를
주님이 돌아가셨네

주님은 살아계시니
우리는 상징물 앞에
겸손히 모여 취하네
우리는 말일성도니
주님의 뜻 이루리라 (찬송가 191장 1.

5, 6절)

그리고 마지막 것은 역시 엘리사 알 스노우 자매가 작사한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가운데 나오는 가사로서, 노래는 홀 형제님 부부께서 불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사랑
크고 넓으셔서
구세주 보내시어서
수난케 하셨네

귀한 피 흘리시어서
생명 버리시니
죄인 위한 돌아가심
세상 구하셨네

끝까지 순종하시어
영광 얻으시니
하나님 뜻 이루기를
기도하시었네

생명과 빛 영원한 곳
하나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시려고
길 예비하셨네 (찬송가 195장)

이것이 비그리스도 교인들의 음성이라는 것입니까?

50곡도 넘는 아름답고 헌신적인 노래들이 주님께 관해 가식 없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가들은 말일성도들의 모임에 경건과 주님을 찬양하는 영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듯 훌륭한 곡과 가사가 비그

리스도 교도에 의해 씌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마태복음 7:16)라고 질문하신 분은 주님이 아니었던가요?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 경건한 찬양을 드리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것은 그들의 숙제이지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도저히 수긍이 안 갑니다. 저는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계시나 경전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는 그러한 주장에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들이 그러한 계시를 인정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하지 않는 한 결코 합일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에 대해 주님 스스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저들이 보고 들은 대로 가르쳐 전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으며 모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할 때,

“예수께서 또다시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이는 저들이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서시어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내려 주기 원하느냐 하시는 지라.

“저들이 예수께 아뢰기를, 주여 백성들 가운데 이 교회를 어찌 부르느냐 하는 일

로 다툼이 있사온즉 저희가 이 교회를 어찌 일컬어야 하는지 당신께서 일러 주시옵소서.

“이에 주가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백성들이 어찌 이 일로 서로 논란하여 다투느냐?

“경전에 그리스도라는 나의 이름을 취하라 한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어지리 로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받들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인즉,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나의 이름으로 하며 교회도 나의 이름으로 부르라. 또한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교회를 축복하시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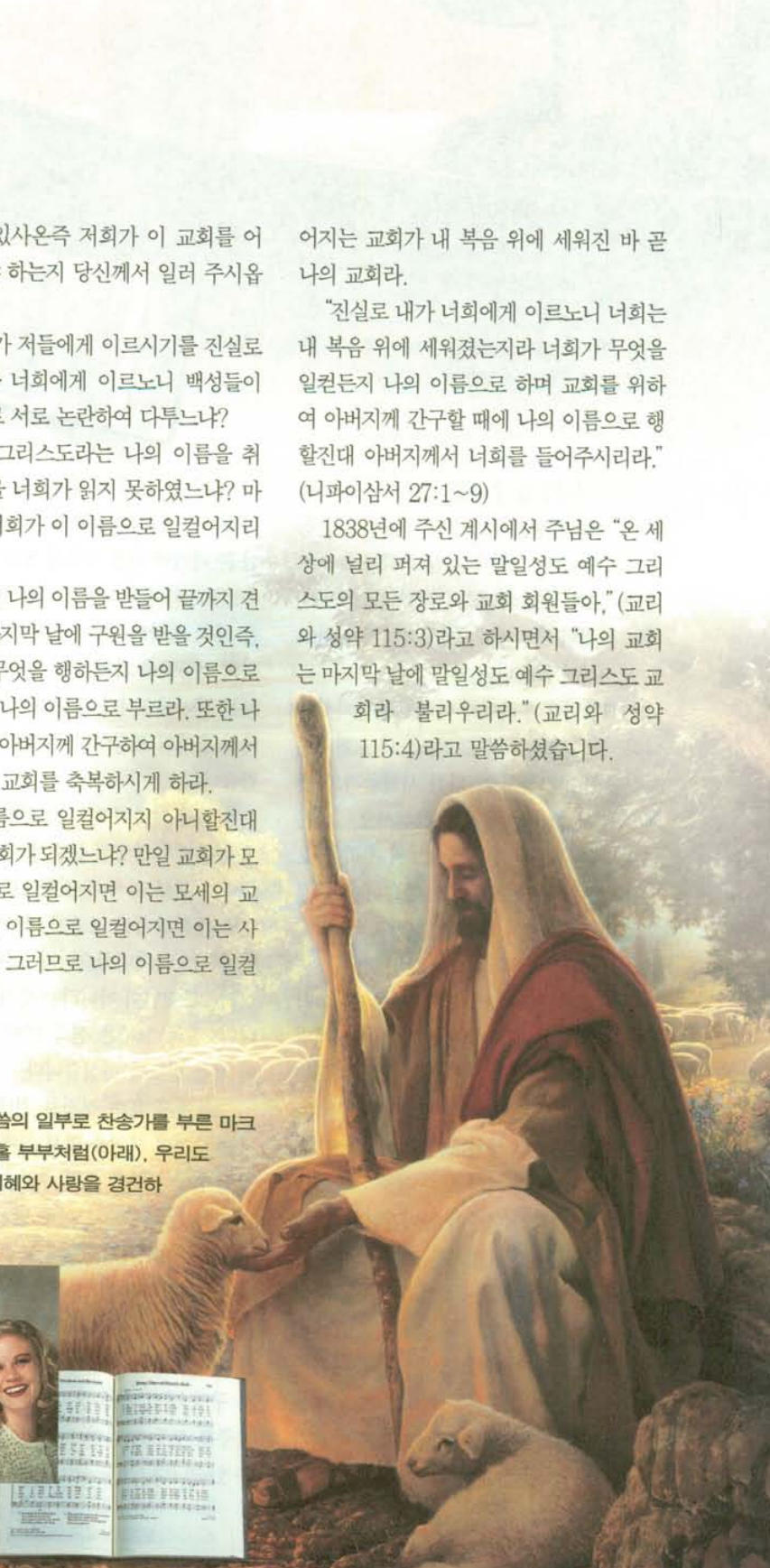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가 되겠느냐? 만일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면 이는 모세의 교회요,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면 이는 사람의 교회라. 그러므로 나의 이름으로 일컬

어지는 교회가 내 복음 위에 세워진 바 곧 나의 교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 복음 위에 세워졌는지라 너희가 무엇을 일컫든지 나의 이름으로 하며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할 때에 나의 이름으로 행할진대 아버지께서 너희를 들어주시리라.” (니파이삼서 27:1~9)

1838년에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장로와 교회 회원들아, (교리와 성약 115:3)라고 하시면서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리우리라.” (교리와 성약 115: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페커 회장 말씀의 일부로 찬송가를 부른 마크 홀과 김벌리 홀 부부처럼(아래),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을 경건하게 찬양한다.





우리 경전은 그리스도를 일컫는 거룩한 명칭들과 영원한 사업에 관한 참조 성구들로 가득하다.



어떤 사람들을 우리를 몰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해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스스로 "몰몬 교회"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적인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관장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실을 강조하십시오. '몰몬 교회'라는 용어를 남용함으로써 우리를 오해할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책 및 공지 사항", *엔사인*, 1983년 3월호, 79쪽)

우리는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나의 이름으로 하며" (니파이삼서 27:7)라는 계명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모든 의식 또한 그분 이름으로 행합니다. 침례, 확인, 축복, 성인, 설교 및 기타 모든 간증 가운데에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병자를 고치며,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밖의 기적들을 행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습니다. 또한 그분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로 성약을 맺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몇 년 전 패커 자매와 저는 옥스포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저의 7대조부인 존 패커에 관한 기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옥스포드의 신학 대학장이신 포펠웰 박사님은 신학 대학의 공문서 관리인에게 우리를 위해 기록들을 가져 오게 할 만큼 매우 친절하신 분이셨습니다. 1583년 기록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조상이신 존 패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듬해 저희 내외는 그 신학 대학 도서관에 아름답게 장식된 표준 경전 한 세트를 기증하기 위해 다시 옥스포드를 찾았습니다. 신학 대학장이신 포펠웰 박사님은 다소의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참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결국 그분은 신학 대학 교목을 불러 이 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교목에게 표준 경전을 건네주기에 앞서 저는 주제별 색인을 펴서 그에게 한 주제의 참조 성구 부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18쪽에 한 행간으로 아주 말끔하게 인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의 참조 성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수집된 참조 성구 중 가장 포괄적이고 방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학과 구약 성서, 몰몬경,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를 모두 망라한 하나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교목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참조 성구들에 접근하시든, 즉 옆으로 쪽 읽어 가시든지,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든지, 아니면 책에서 책으로 찾아보시든지 혹은 주제별로 읽어 보시든지에 상관없이 이 성구들은 일관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탄생, 생애, 가르침, 십자가에 못박히심, 부활 및 속죄에 관한 것 등을 볼 수 있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서먹서먹하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최근 발견된 로마 시대 벽화가 있는 발굴 현장까지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별 색인에 있는 이 참조 성구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서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니파이서 25:26)

이 성약의 책은 꼭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몬경에 나와 있는 전체 6607개의 구절 중 절반도 넘는 3925개의 성구가 그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책의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한 하나님" 이심을 확신시키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는 이 책의 속표지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속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등과 같은 100여 가지나 되는 명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즉 6607절의 마지막 문장 마지막 구절에서 구세주는 "영원한 재판관이신 여

호와”(모로나이서 10:34; 수잔 와드 이스튼, “물론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명칭들,” 엔사인, 1978년 7월호, 60~61쪽 또한 참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 부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를 전혀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라고 분류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을 계속 혼돈스럽고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교리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 30)라는 계시의 말씀

- 성경 외의 경전들인 물론경,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

- 사도와 예언자를 통해 주어지는 계속적인 계시

- 신회의 교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각각 다른 개체이시며,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교리와 성약 130:22)다는 사실

-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결국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 결혼은 이생이 다한 후에도 계속될 수 있으며 가족은 영원하다는 것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하히 노력”(니파이이서 25:23)한 후에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등.

그와 같은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할 수 있어야만 영의 증거를 얻어 교회에 가입하여 그 안에 충실하게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 중에는 이성적인 설명을 뛰어넘는

것도 있는데, 특히 개심으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지식이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가 답변을 한다 해도 그것이 계시의 연속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흡족하게 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들을 두고 논쟁을 벌이면 흔히 빛보다는 격렬한 감정을 자아냅니다.

제가 기초 필수 과목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수업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는 기초 화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급 화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다만 적절한 기초 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린도전서 2:11~14)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렇듯 많은 개종자들을 불러모으는지에 대해, 혹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많은 질문이 있는데도 회원들이 교회에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준해서 인간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렇게 간단해 보입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를 두면서도 다른 경전들에 의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여하히 노력”(니파이이서 25:23)한 후에 은혜에 의해 구원받는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와 복음의 표준을 지키겠다는 성약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사도 야고보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야고보서 2:17)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비난을 가해 오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야고보서 2:18)고 말합니다.

말일성도들은 성약과 의식으로 강화되어 금식의 법을 지키고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며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하여, 우리들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권고하였음이요,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니파이이서 25:23)

개종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그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베드로전서 3:15)를 찾게 됩니다. 복음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에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배우면서 생을 보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어려운 질문들은 점차 하나하나 간증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든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 (신앙개조 제11조)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상기시켜 주고자 합니다. 즉 그들은 가말리엘의 동료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했을 때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사백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좃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피어 좃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좃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사도행전 5:34~40)

가말리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마태복음 15:13)라는 주님 말씀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어느 면으로든 그 힘이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문제는 그들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누구의 이름으로 경배하는지를 압니다. 아마 사람들은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 많은 수가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3분의 2는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에 의해 침례의 물가로 나아온 개종자들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모태 신앙인이든 개종자이든 간에 개인적인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비난과 근거도 없는 반대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그리고] 저들의 조상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첫 번이나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함에 죄가 되지 않거든, 원수의 손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하라.”(엘머서 43:46)

만일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대항하러 올 경우—우리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전에도 그랬듯이)—그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썩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좃는 자”로 남아 있는 한 그들 가운데 분명히 생겨 결국 그들은 스스로 힘이 빠져 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다가 결국 자신이 해를 입게 된다.”는 스페인 속담에서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하여, 우리들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고 하였음이었요”



큰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들을 적대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더라도 그들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평강 가운데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그저 겸손하고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가 너희 싸움을 맡아 싸워 주리라." (교리와 성약 105:14)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주님은 직업적인 성직자 없이도 이 교회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일찍이 그분께서는 계시를 통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

"신앙이 땅에 증가되게 하며,

"나의 영원한 성약이 이뤄지게 하며,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전파되며" (교리와 성약 1:20~23)

우리 가운데 몇몇은 하필이면 왜 우리가 비그리스도 교도라고 일컬어지는지 의아해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를 참아 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약간의 반대는 있게 마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 교회에 속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 교회는 관리하기가 쉬운 교회인 것만은 아닙니다. 신권의 유형에 따라 모든 사람은 어느 위치에 처해 있든 가르치고 인도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차원의

복음 지식, 지도력, 재능 및 간증을 지닌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엘리사 알 스노우는 "너희 시온에 모일 때는"이라는 찬송의 작사를 했습니다.

너희 시온에 모일 때는
근심 걱정 사라지고
위안과 기쁨만
너희들을 기다린다 생각 말아라
광석, 나무, 집, 부스러기
모든 것 태워 버리고
금만 받아 내는 용광로가
너희의 시온이라네

너희 시온에 모일 때는
저것 속임 하나 없고
순결과 거룩함 자신만이
보장됐다 생각 말아라
구세주 말씀하시기를
추수 끝마쳐
가라지 태울 그 날까지
밀과 함께 자라나리라 하셨네

너희 시온에 모일 때는
성도 너희를 언제나 위로해 주며
네 복리만을 구하라 생각 말아라
신앙 있는 자
밤낮으로 있는 힘 다해
흠어진 이스라엘 모으는
위대한 일
전심 전력해야 하리

너희 시온에 모일 때는

구속 사업 다 이루어
승리로 전쟁 끝내고
상도 얻었다고 생각 말아라
저 암흑의 왕
너희들이 진리의 샘을 찾은 줄 알며는

온 힘 다하여서
미혹하려 함이니라 (구 찬송가 43장)

그러므로 영의 격려에 힘입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화평한 중에 계속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의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여지고 우리 모임이 의견의 조화 속에서 끝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드렸을 때 이러한 요청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느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사와 금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청중들에게 아무리 터무니없게 보일 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 진리에 대한 간증이 있는 이상 커다란 확신을 갖고 진리를 가르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불안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모임을 박차고 일어서 나간다면,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하면 그렇게 하라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이 예고한 대로였습니다. 그룹 가운데 일부가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놀라움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화평했습니다. 저

는 진리를 가르쳤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갖는 소망이며, 자주 있는 사실이 기도 하듯 어느 그룹 내에서든 열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라는 단순한 생각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진지한 기도와 결합시키십시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신성한 숲으로 들어가 "어느 교파가 옳으며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연륜이 쌓여 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이든 아니든 그에 대한 걱정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만일 이해를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하는 입장을 변호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형제 자매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복음 교리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혹시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두 만족

시킬 만큼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동요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제대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해 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자신이 느끼는 바에 대해 간증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곧 한 알의 씨앗을 심어 그것이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나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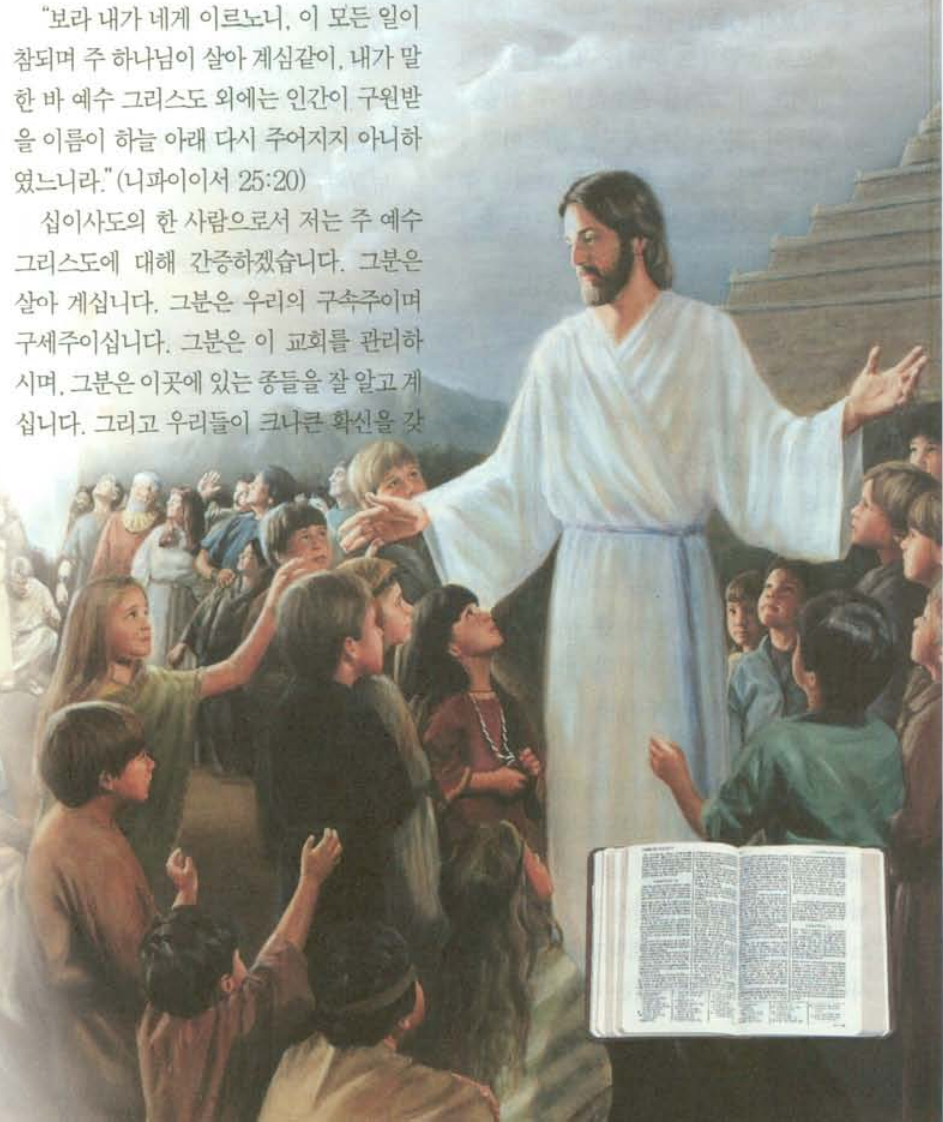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참되며 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같이, 내가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이름이 하늘 아래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니파이이서 25:20)

십이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겠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며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이 교회를 관리하시며, 그분은 이곳에 있는 종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크나큰 확신을 갖

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그분의 영은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축복이 우리 젊은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께서 그러한 확신과 간증 가운데 용기를 키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씨앗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 영생으로 이르는 열매를 맺길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들은 물문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세대에 걸쳐 여러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말씀하신다는 증거가 된다.



성도의 벗 1998년 색인

색인은 세 가지 항목 즉, 주제별 목록과
저자별 목록과 제목별 목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연차 대회 말씀에 대한 색인도 들어 있다.

C = 어린이란 쪽

성도의 벗은 현재 31개 언어로 간행되고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 중의 하나이다. 국제판 잡지는 월간으로 중국어, 덴마크어, 네델란드어, 영어, 필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이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로 발행되고 있으며, 격월간으로 인도네시아어와
타이어로 발행되며, 계간으로 불가리아어, 세부어, 체코어, 피지어, 헝가리아어, 아이슬란드어, 키리바시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우크라이나어 및 베트남어로 발행되고 있다. 1999년에는 계간으로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하이티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및 타이티어로 발행될 예정이다. 각 언어로 간행되는 국제판 잡지의 구독 신청이나 날권에 대한 구입은
지역의 배부 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주제별 색인

7

가르침

교사, 영원한 열쇠, 해롤드 지 힐렘, 1월호, 62쪽
 교사를 위한 여섯 가지 제언, 케리 제인 후토, 3월호, 24쪽
 신앙을 실현시킴, 제넷 헤일즈 베컴, 1월호, 75쪽
 우리 자녀들에게 경전을 사랑하도록 가르침, 앤 지 위스틴, 7월호, 9쪽
 "일곱 우뢰의 음성", 4월호, 26쪽
 자녀들과 가족, 더블류 유진 헨슨, 7월호, 58쪽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 제프리 알 홀런드, 7월호, 25쪽

가사파, 시저(에 관한 기사)

자신의 두 발로, 리사 엠 그로비, 3월호, 34쪽

가정

가정 : 피난처와 성소, 에런 에이 콜, 1월호, 28쪽
 안전한 장소를 마련함, 버지니아 유 켄슨, 1월호, 89쪽

가정 복음 교육

가정 복음 교육 하나의 영역,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46쪽
 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됨, 켈린 릭스 애덤스, 9월호, 34쪽

가족 역사(성전 및 성전사업 참조)

새로운 추수의 시기, 러셀 엠 넬슨, 7월호, 34쪽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함, 7월호, 91쪽

가족 관계(어린이, 결혼, 부모권 참조)

가장 훌륭한 가족으로부터, 케이 헤이고, 5월호, 48쪽
 가족, 헨리 비 아이어링, 10월호, 12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10월호, 24쪽
 계명대로 생활하라, 데이비드 비 헤이트, 7월호, 6쪽
 고귀한 동반자들, 조셉 비 위스틴, 1월호, 32쪽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가?", 마크 이 마틴슨, 12월호, 28쪽
 마음을 가족에게로 돌이킴, 마가렛 디 네이들, 7월호, 89쪽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67쪽
 새로운 추수의 시기, 러셀 엠 넬슨, 7월호, 34쪽
 아빠가 믿지 않을 때, 3월호, 40쪽
 어떻게 우리 가정을 더욱 행복하고 영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8월호, 26쪽
 왕국의 완전한 길, 데일 이 밀러, 7월호, 29쪽
 자유의지와 분노, 린지 로빈스, 7월호, 80쪽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함, 캐롤 비 토마스,

7월호, 91쪽
 청년-자유 의 깃발, 새른 지 라슨, 7월호, 93쪽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17쪽

간증(간증, 신앙 참조)

간증,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69쪽
 만약에?, 쉬일러 킨드레드, 2월호, 24쪽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조셉 레이 지 브릴런트스, 3월호, 10쪽
 불확실한 것을 극복하고 진리에 대해 확신하게 됨, 리차드 이 터틀, 7월호, 83쪽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12월호, 8쪽
 예수님 이야기, 리차드 엠 롬바, 4월호, 8쪽
 우리는 주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4쪽
 "자매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매님입니까?", 셰리 엘 듀, 1월호, 91쪽

감사

가장 크게 감사할 일, 새뮤얼 펠시퍼, 4월호, C14쪽
 감사를 드림, 시드니 레이놀즈, 11월호, C6쪽
 감사하는 마음,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호, C5쪽
 고마워요, 노라! 알바 스텔라 카나베랄 블란돈, 8월호, 24쪽
 로베르토는 잊지 않아요, 매튜 케닝턴과 대니얼 케닝턴, 11월호, C8쪽
 미소지어야 할 이유, 조 제이 크리스틴슨, 9월호, 28쪽
 복음의 보편적인 적용, 제이 켄트 졸리, 1월호, 80쪽

개심(신앙, 간증 참조)

간증,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69쪽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행동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리차드 이 쿡, 7월호, 28쪽
 나의 두 번째 침례, 쉐 자 섀과 마이클 제이 베어맨, 9월호, 8쪽
 사샤 스트라코바, 마빈 케이 가드너, 10월호, 8쪽
 애플린 페레스 : 참고 기다린 수학, 테리 크루시, 8월호, 7쪽
 자신의 두 발로, 리사 엠 그로비, 3월호, 34쪽
 잘못된 첫인상, 오마 아브라함 아호메드 차베스, 8월호, 43쪽

개인의 가치

승리, 8월호, 40쪽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강화시킴, 8월호, 42쪽

개혁자(교회 역사 참조)

개혁자들이 따름, 델린 에이치 옥스, 1월호, 72쪽
 낙원 : 바하마, 리사 엠 그로비, 8월호, 36쪽
 러시아에서의 신앙의 유산, 캐리 브라운닝, 4월호, 32쪽

만약 여러분이 교회 개혁자와 친척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까? 3월호, 30쪽
 미래의 개혁자 :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42쪽
 순종의 찬송 : "모든 것 잘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1월호, 70쪽
 아름다운 바하마의 개혁자들, 제넷 토마스, 8월호, 30쪽
 여러 시대의 신앙의 개혁자들, 메리 엘런 스무트, 1월호, 12쪽
 응 캣 히트 : 홍공의 개혁자, 켈린 릭스 애덤스, 3월호, 14쪽
 장미처럼 피어나리라, 테니스 페이지, 6월호, C4쪽
 초원의 불, 레베카 토드, 11월호, C2쪽
 "충실하고, 선하고, 덕스럽고, 참된 성도들" : 필리핀의 개혁자들, 알 러니어 브릿쉬, 2월호, 40쪽

기록함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델린 에이치 옥스, 7월호, 55쪽

결심

왕국의 완전한 길, 데일 이 밀러, 7월호, 29쪽

결혼(신앙, 가족 관계, 성전 및 성전사업 참조)

"간음하지 말찌니라", 더블류 제프리 마쉬, 8월호, 18쪽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루함, 11월호, 26쪽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49쪽
 해의 왕국의 결혼, 10월호, 25쪽

경전 공부

가장 훌륭한 가족으로부터, 케이 헤이고, 5월호, 48쪽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티파니 로키어, 9월호, 24쪽
 내 말을 연구하라, 3월호, 25쪽
 신앙을 실현시킴, 제넷 헤일즈 베컴, 1월호, 75쪽
 우리 자녀들에게 경전을 사랑하도록 가르침, 앤 지 위스틴, 7월호, 9쪽
 우리는 경전에서 무엇을 상고해야 할까요? 5월호, 28쪽
 주님의 놀라운 계시, 엠 러셀 벨라드, 7월호, 31쪽

계명(순종, 십계명 참조)

계명대로 생활하라, 데이비드 비 헤이트, 7월호, 6쪽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을 준행함, 2월호, 25쪽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제임즈 엠 패러모어, 7월호, 41쪽

계시(성신, 예언자 참조)

주님은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심, 리차드 디 알파드, 1월호, 27쪽
주님의 놀라운 계시, 엠 러셀 벨라드, 7월호, 31쪽

고별

몸소 실천하는 말일성도,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85쪽
안전하지 못함,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46쪽
"올은 일을 선택하라", 실러 알 우다드, 4월호, C8쪽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치 않는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43쪽
확실한 도덕 지침이 되는 네 가지 절대적 진리, 리차드 비 위스린, 1월호, 9쪽

고난(역경, 죄 참조)

고슬린드, 잭 에이치(-에 관한 기사)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8월호, C2쪽

교육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9월호, 2쪽
진리를 받음, 엘 톰 페리, 1월호, 60쪽

교회 교육 기구

미래의 개척자 :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42쪽
진리를 받음, 엘 톰 페리, 1월호, 60쪽

교회 부름

고마워요, 노라! 알바 스텔라 카나베랄 블란돈, 8월호, 24쪽
주 섬기라, 보이드 케이 패커, 1월호, 6쪽

교회 역사(개척자 참조)

계명대로 생활하라, 데이비드 비 헤이트, 7월호, 6쪽
시각 보조 자료를 통한 브리감 영 생애의 탐구 여행, 6월호, 36쪽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제넷 토마스, 12월호, 40쪽

교회 잡지

진세제인을 위한 잡지, 마빈 케이 가드너, 10월호, 32쪽

교회 조직

절서의 집, 하나님의 집, 4월호, 25쪽

교회의 성장

동유럽에 뿌리 내린 복음에 대한 회고, 테니스 비 노인슈안더, 10월호, 38쪽
"충실하고, 선하고, 덕스럽고, 참된 성도들" : 필리핀의 개척자들, 알 러니아 브릿쉬, 2월호, 40쪽

구역(십계명 참조)

가장 훌륭한 가족으로부터, 케이 헤이고, 5월호, 48쪽
고대 축복사의 수명, 토마스 알 발레타, 3월호, 44쪽
구역전서 이야기 주머니, 비비안 폴슨과 코리스 클레이튼, 10월호, C13쪽
나아만, 침례와 씻음, 트래비스 티 앤더슨, 6월호, 44쪽

모세가 그의 백성을 가르침, 비비안 폴슨, 11월호, C10쪽

바벨탑, 리 도날드슨, 브리 덴 로저스, 데이비드 몰프 시리, 3월호, 46쪽

요나와 니스웨 백성, 비비안 폴슨, 9월호, C4쪽

요시아, 경전을 믿은 자, 비비안 폴슨, 8월호, C12쪽

인간 아담, 로버트 엘 밀렛, 2월호, 14쪽

창조의 기간, 토마스 알 발레타, 3월호, 42쪽

구원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델린 에이치 옥스, 7월호, 55쪽

구원의 계획

가족, 헨리 비 아이어링, 10월호, 12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10월호, 24쪽
구원의 계획 : 인생의 비행 계획, 듀엔 비 제라드, 1월호, 77쪽

그리스도교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델린 에이치 옥스, 7월호, 55쪽
우리는 주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4쪽
제자와 친구가 됩시다, 리차드 시 에즐리, 7월호, 11쪽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 보이드 케이 패커, 12월호, 16쪽

기도

기도, 시드니 레이놀즈, 9월호, C12쪽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티파니 로키어, 9월호, 24쪽
만약에? 쉬일러 킨드레드, 2월호, 24쪽
영감에 찬 생각,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2쪽
장미처럼 피어나리라, 테니스 페이지, 6월호, C4쪽
주님께 바치는 기도,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블로스 수아레스, 3월호, 28쪽
주님의 바람, 존 에이치 그로버그, 3월호, C16쪽
할아버지의 기도, 에일린 머피 알레드, 3월호, C4쪽
함께 나누는 기도, 사이안 오웬 베시, 6월호, 14쪽

L

나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제넷 토마스, 12월호, 40쪽

나아만

나아만, 침례와 씻음, 트래비스 티 앤더슨, 6월호, 44쪽

노래

아름다운 구세주, 10월호, C4쪽

뉴스 속의 친구들

3월호, C8쪽; 9월호, C6쪽

C

단정함(순결 참조)

단합

가족 사진, 5월호, 33쪽
하나가 되기 위하여, 헨리 비 아이어링, 7월호, 66쪽
행복의 걸림돌을 제거함, 리차드 지 스크트, 7월호, 85쪽

대관장단 메시지

거듭남, 제임즈 이 파우스트, 6월호, 2쪽
"보라, 네 어머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4월호, 2쪽
성탄절이란 무엇입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12월호, 2쪽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고든 비 힝클리, 3월호, 2쪽
어린 아이의 신앙, 토마스 에스 몬슨, 8월호, 2쪽
역경의 축복, 제임즈 이 파우스트, 5월호, 2쪽
영감에 찬 생각,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2쪽
영을 먹이고 영혼을 삼켜줌, 고든 비 힝클리, 10월호, 2쪽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겠느냐? 토마스 에스 몬슨, 2월호, 2쪽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9월호, 2쪽

대학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가?", 마크 이 마틴슨, 12월호, 28쪽

도널드슨, 어네스틴(-에 관한 기사)

알래스카, 빅 레이크의 어네스틴 도널드슨, 레베카 토드, 6월호, C14쪽

도덕(순결, 고결 참조)

동유럽

동유럽에 뿌리 내린 복음에 대한 회고, 테니스 비 노인슈안더, 10월호, 38쪽

동정(사랑 참조)

R

러시아

러시아에서의 신앙의 유산, 제리 브라운, 4월호, 32쪽

사샤 스트라크바, 마빈 케이 가드너, 10월호, 8쪽

로페즈, 휴고(-에 관한 기사)

아트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휴고 로페즈, 디앤 워커, 4월호, C2쪽

마다가스카르

초등학교-주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플랫폼
랜브제느, 6월호, 48쪽

매제

교사, 영원한 열쇠, 해롤드 지 힐렘, 1월호, 62쪽
전세계인을 위한 잡지, 마빈 케이 가드너, 10월호,
32쪽

주님께 더욱 가까워짐,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쪽
폭력에 대하여 경계함, 해롤드 옥스, 5월호, 24쪽

멕시코

자신의 두 발로, 리사 엠 그로비, 3월호, 34쪽

모독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함, 로버트 엘 밀렛,
4월호, 18쪽

모범

모범을 보임, 나탈리 루시 실바, 11월호, C12쪽
아버지의 사랑, 재키 요한슨, 9월호, C10쪽
안전한 장소를 마련함, 버지니아 유 겐슨, 1월호, 89쪽
어떻게 우리 가정을 더욱 행복하고 영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8월호, 26쪽
영적인 능력, 러셀 엠 넬슨, 1월호, 14쪽
자녀들과 가족, 더블류 유진 헨슨, 7월호, 58쪽
주님께 더욱 가까워짐,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쪽
하나의 힘-리그머 하이스트의 모범, 잔 유 핀보러와
마빈 케이 가드너, 6월호, 8쪽

모성(부모의 역할 참조)

모세

모세가 그의 백성을 가르침, 비비안 폴슨, 11월호,
C10쪽

목표

순종-위대한 삶의 도전, 도널드 엘 스타렐리, 7월호,
81쪽
십대 자녀들을 해의 영광에 이르게 함, 리차드 제이
매이너즈, 1월호, 30쪽

물문 메시지

가장 훌륭한 성탄절 선물을 구함, 12월호, 7쪽
가족 사진, 5월호, 33쪽
여기가 바로 그 곳이다, 3월호, 33쪽

물문경

나는 누구 일까요? 물문경 퀴즈, 9월호, C8쪽
밤이 없었던 그 날, 메이블 존스 개보트, 12월호, C4쪽

물문경 이야기

모로나이와 그의 가르침, 3월호, C2쪽
물문경 약속, 4월호, C5쪽
물문경이 나온 과정, 5월호, C14쪽

물문과 그의 가르침, 2월호, C12쪽

미덕(순결 참조)

비벨탑

비벨탑, 리 도날드슨, 브이 덴 로저스, 데이비드 톨프
시리, 3월호, 46쪽

바하마

낙원: 바하마, 리사 엠 그로비, 8월호, 36쪽
아름다운 바하마의 개척자들, 제넷 토마스, 8월호,
30쪽

방문 교육

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됨, 켈린 릭스
애덤스, 9월호, 34쪽
잊을 수 없는 친구, 카산드리아 린 차이, 3월호, 26쪽

방문 교육 메시지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 9월호,
25쪽
내 말을 연구하라, 3월호, 25쪽
"내가 너희를 고쳐주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11월호,
25쪽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 8월호, 25쪽
성약을 맺고 복음 의식을 받음으로써 시몬을 건설함,
5월호, 25쪽
십일조의 법을 준수함, 12월호, 25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6월호, 25쪽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을 준행함, 2월호,
25쪽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 4월호, 25쪽
해의 왕국의 결혼, 10월호, 25쪽

병 고침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11월호,
25쪽
치유로 가는 여정, 4월호, 42쪽

복음

복음의 보편적인 적용, 제이 켄트 즐리, 1월호, 80쪽
신앙개조, 엘 톰 페리, 7월호, 22쪽

봉사

5학년 슈퍼스타, 클레어 미쉬커, 2월호, C8쪽
가정 복음 교육-하나의 성역, 토마스 에스 문슨,
1월호, 46쪽
거듭남, 제임즈 이 파우스트, 6월호, 2쪽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십시오, 마가렛 디 네이폴드,
7월호, 64쪽
나의 전용 음급 구조단, 티 손 화이트, 2월호, 34쪽
"너희가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8월호, 14쪽

비 제이의 비밀, 클레어 미쉬커, 12월호, C10쪽
성탄절이란 무엇입니까?, 토마스 에스 문슨, 12월호,
2쪽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제넷 토마스, 12월호, 40쪽
안전하지 못함, 토마스 에스 문슨, 7월호, 46쪽
"어깨로 수레 바퀴를 밀 듯이 부지런히 일함", 닐 에이
맥스웰, 7월호, 37쪽

에스더의 마지막 선물, 베스 테일러, 9월호, 46쪽
왜 모든 회원이 선교사라야만 합니까?, 리차드 지
스코트, 1월호, 35쪽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겠느냐?, 토마스
에스 문슨, 2월호, 2쪽
주 섬기라, 보이드 케이 패커, 1월호, 6쪽

준비하는 시간, 조셉 비 위스린, 7월호, 14쪽
진리와 정의를 수호함, 엘 러셀 벨라드, 1월호, 37쪽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 4월호, 25쪽
타일러의 명찰, 파트리샤 워늬, 9월호, C14쪽
토요일은 봉사하는 날, 제나 닐슨, 8월호, 10쪽

부모의 역할(가족 관계 참조)

가정 : 피난처와 성소, 에런 에이 콜, 1월호, 28쪽
"보라, 네 어머니라", 토마스 에스 문슨, 4월호, 2쪽
상호부조화라는 강한 힘, 토마스 에스 문슨, 1월호,
94쪽
안전한 장소를 마련함, 버지니아 유 겐슨, 1월호, 89쪽
어린이들을 가르침, 토마스 에스 문슨, 1월호, 17쪽
영을 먹이고 영혼을 살찌움, 고든 비 힝클리, 10월호,
2쪽
자녀들의 마음에 약속을 심어줌, 브루스 시 하펜,
6월호, 16쪽

부활절(속죄, 부활 참조)

구세주에 초점을 두고 부활절을 기억함, 리사 엠
그로비, 4월호, 16쪽
부활절 퀴즈, 4월호, C11쪽

분노

"살인하지 말찌니라", 아더 알 베시트, 9월호, 18쪽
자유 의지와 분노, 린지 로빈스, 7월호, 80쪽

브라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자이나나 다 실바 산토스,
멜빈 리빗, 12월호, C14쪽

브라운, 데이비드(-에 관한 기사)

주님을 맨 먼저 생각함, 린다 반 오든, 11월호,
43쪽

비어드, 타마라(-에 관한 기사)

잊을 수 없는 친구, 카산드리아 린 차이, 3월호, 26쪽

비평

올해의 더 좋은 바: 심판과 자비와 신앙,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53쪽

사람

“딸아 안심하라”, 웨인 엠 헨콕, 1월호, 79쪽
 “보라, 네 어머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4월호, 2쪽
 상호부조회라는 강한 힘,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94쪽
 새로운 개종자를 보살피십시오, 칼 비 프랫, 1월호, 11쪽
 아버지의 사랑, 제키 요한슨, 9월호, C10쪽
 에스더의 마지막 선물, 9월호, 46쪽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겠느냐? 토마스 에스 몬슨, 2월호, 2쪽
 청년-자유의 길, 새론 지 라슨, 7월호, 93쪽
산토스, 자나이나 다 실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자나이나 다 실바 산토스, 멜빈 리벗, 12월호, C14쪽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2월호, 12쪽; 5월호, 26쪽; 6월호, 26쪽; 8월호, 16쪽; 9월호, 16쪽; 12월호, 38쪽
상호부조회
 상호 부조회, 보이드 케이 패커, 7월호, 72쪽
 상호부조회라는 강한 힘,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94쪽
 “이 때를 위하여”, 메리 앨런 스무트, 1월호, 86쪽
 “일곱 우리의 음성”, 4월호, 26쪽
 자매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매님입니까?, 세리 엘 듀, 1월호, 91쪽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 4월호, 25쪽
새거스팀 가족
 새거스팀 가족, 콜리스 클레이튼, 5월호, C12쪽
선교사업
 가서 행하겠나이다, 로리 리브시, 2월호, 8쪽
 가장 귀한 질문, 팻 메이더스, 10월호, 36쪽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행동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리차드 이 쿡, 7월호, 28쪽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다, 10월호, C6쪽
 “내 양을 먹이라”, 헨리 비 아이어링, 1월호, 82쪽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델린 에이치 옥스, 7월호, 55쪽
 동유럽에 뿌리 내린 복음에 대한 회고,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10월호, 38쪽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67쪽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로버트 더 헤일즈, 7월호, 75쪽
 선교사로 봉사함, 일 시 팀기, 7월호, 39쪽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사업,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9쪽
 신앙개조, 엘 톰 페리, 7월호, 22쪽
 어느 어린 선교사, 디앤 워커, 8월호, C10쪽
 영에 이끌려 나아감, 로날 나바로 구티레스, 11월호, 8쪽
 “왜 모든 회원이 선교사라야만 합니까?”, 리차드 지 스코트, 1월호, 35쪽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제임즈 엠 페리모어, 7월호, 41쪽
 타일러의 명찰, 파트리샤 워너, 9월호, C14쪽
 하나의 힘-리더가 하이스트의 모범, 잔 유 핀보러와 마빈 케이 가드너, 6월호, 8쪽
 함께 나누는 기도, 사이언 오웬 베시, 6월호, 14쪽
선택(자유주의 참조)
선행(모범, 봉사 참조)
성 역할(결혼, 가족 관계, 신권 참조)
 얼마나 천사에 가까운 존재입니까,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95쪽
성격(고결 참조)
성신(신회, 계시 참조)
 “가만히 있거라”, 잭 에이브럼 골드럽과 레이 골드럽, 8월호, C14쪽
 고결한 동반자들, 조셉 비 위스린, 1월호, 32쪽
 “내 양을 먹이라”, 헨리 비 아이어링, 1월호, 82쪽
 불확실한 것을 극복하고 진리에 대해 확신하게 됨, 리차드 이 텅리 일세, 7월호, 83쪽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 8월호, 25쪽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조셉 비 위스린, 11월호, 46쪽
 영에 이끌려 나아감, 로날 나바로 구티레스, 11월호, 8쪽
 영을 먹이고 영혼을 살피우, 고든 비 힝클리, 10월호, 2쪽
 주 섬기라, 보이드 케이 패커, 1월호, 6쪽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9월호, 2쪽
 하나가 되기 위하여, 헨리 비 아이어링, 7월호, 66쪽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제프리 알 홀런드, 7월호, 25쪽
성약(침례, 성전 및 성전사업 참조)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9월호, 25쪽
 나의 약속 지키기, 시드니 레이놀즈, 8월호, C4쪽
 성약을 맺고 복음 의식을 받음으로써 시온을 건설함, 5월호, 25쪽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함, 로버트 엘 밀렛, 4월호, 18쪽

하나가 되기 위하여, 헨리 비 아이어링, 7월호, 66쪽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17쪽
성전 및 성전 사업(가족 역사 참조)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 줄 새로운 성전들,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87쪽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9쪽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3월호, 33쪽
 전세계의 성전, 2월호, 38쪽
성찬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9월호, 25쪽
세미나리(교회 교육 기구 참조)
소망
 거듭남, 제임즈 이 파우스트, 6월호, 2쪽
 구름 위에서, 클라우디아 아파레시다 아시스 아우구스트, 9월호, 26쪽
 “주리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블리셨으며”, 제프리 알 홀런드, 1월호, 64쪽
속죄(예수 그리스도, 회개 참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닐 에이 맥스웰, 1월호, 22쪽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게 하지 아니하리느냐”, 11월호, 25쪽
 와 보라, 제프리 알 홀런드, 8월호, 44쪽
 치유로 가는 여정, 4월호, 42쪽
순결
 “간음하지 말찌니라”, 더블류 제프리 마슈, 8월호, 18쪽
 얼마나 천사에 가까운 존재입니까?,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95쪽
순수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49쪽
순증(계명 참조)
 “가만히 있거라”, 잭 에이브럼 골드럽이 레이 골드럽에게 한 이야기, 8월호, C14쪽
 개척자들을 따름, 델린 에이치 옥스, 1월호, 72쪽
 공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9월호, C2쪽
 몸소 실천하는 말일성도,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85쪽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67쪽
 순종-위대한 삶의 도전, 도널드 엘 스타펠리, 7월호, 81쪽
 십일조: 투근, 로날드 이 포울맨, 7월호, 78쪽
 안전하지 못함,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46쪽

초원의 불, 레베카 토드, 11월호, C2쪽
스미스, 요셉(교회 역사, 회백 참조)
 주님의 놀라운 계시, 엠 러셀 벨라드, 7월호, 31쪽
스카우트(청남 참조)
스트라코바, 사샤(에 관한 기사)

사샤 스트라코바, 마빈 케이 가드너, 10월호, 8쪽
시온
 성약을 맺고 복음 의식을 받음으로써 시온을 건설함,
 5월호, 25쪽

신권
 내 손으로 신권을 행사함, 퓨코 레이, 9월호, 32쪽
 "보라, 이 사람이로다", 키스 비 맥밀린, 1월호, 40쪽
 선교사로 봉사함, 얼 시 탕기, 7월호, 39쪽
 인간 아담, 로버트 엘 밀렛, 2월호, 14쪽
 "일곱 우리의 음성", 4월호, 26쪽
 진리와 정의를 수호함, 러셀 엠 넬슨, 1월호,
 37쪽

신학
 "여호와를 의뢰하고", 시드니 레이놀즈, 6월호, C8쪽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제임스 엠
 패러모어, 7월호, 41쪽

신앙(개심, 간증 참조)
 개혁자들을 따름, 델린 에이치 옥스, 1월호, 72쪽
 러시아에서의 신앙의 유산, 게리 브라우닝, 4월호,
 32쪽
 미래의 개혁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오",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42쪽
 순종의 찬송: "모든 것 잘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1월호, 70쪽
 신앙을 실현시킴, 제넷 헤일즈 베킴, 1월호, 75쪽
 신앙이 깊은 여성, 5월호, 42쪽
 어린 아이의 신앙, 8월호, 2쪽
 어린이들을 가르침,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17쪽
 여러 시대의 신앙의 개혁자들, 메리 앨런 스무트,
 1월호, 12쪽
 영감에 찬 생각,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2쪽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43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6월호, 25쪽
 주님의 바람, 존 에이치 그로버그, 3월호, C16쪽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52쪽

신앙개조
 신앙개조 짚고, 콜리스 클레이튼, 8월호, C8쪽
 신앙개조, 엘 톰 페리, 7월호, 22쪽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43쪽

신약
 예수님 이야기, 리처드 엠 린니, 4월호, 8쪽
신회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고든 비 힝클리, 3월호, 2쪽
심심풀이
 2월호, C11쪽; 3월호, C6쪽; 5월호, C10쪽, 6월호,
 C10쪽; 10월호, C13쪽
십계명
 "간음하지 말찌니라", 더블류 제프리 마쉬, 8월호,
 18쪽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 에스
 마이클 윌콕스, 2월호, 26쪽
 "너희는 도덕질하지 말찌니라", 리처드 디 드레이퍼,
 10월호, 26쪽
 "너희는 탐내지 말찌니", 브렌트 엘 탐, 12월호, 30쪽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로버트
 제이 매튜즈, 11월호, 14쪽
 "살인하지 말찌니라", 아더 알 베시트, 9월호, 18쪽
 안식일을 기억하라, 디 켈리 옥든, 5월호, 16쪽
 자녀들의 마음에 약속을 심어줌, 브루스 시 하펜,
 6월호, 16쪽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함, 로버트 엘 밀렛,
 4월호, 18쪽
 현대의 새긴 우상을 숭배하기를 거부함, 데니스 라지,
 3월호, 16쪽

십일조
 십일조: 특권, 로날드 이 포울먼, 7월호, 78쪽
 십일조의 범을 준수함, 12월호, 25쪽
 주님의 약속을 증명해 보임, 디어도르 지 발만,
 12월호, 26쪽



아담
 인간 아담, 로버트 엘 밀렛, 2월호, 14쪽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휴고 로페즈, 디앤
 워커, 4월호, C2쪽
 아르헨티나의 당면 과제, 디앤 워커, 9월호, 10쪽
아름다움(예술, 지구 참조)
 노을처럼 순수하게, 사라 바튼, 6월호, 7쪽
아리에타나(에 관한 기사)
 키리바시의 아리에타나, 조이스 핀들레이, 10월호,
 C14쪽
아버지의 역할(부모의 역할 참조)
아이어링, 헨리 비(에 관한 기사)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2월호, C2쪽

안식일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 9월호,
 25쪽
 안식일을 기억하라, 디 켈리 옥든, 5월호, 16쪽
 주님을 맨 먼저 생각함, 린다 반 오든, 11월호, 42쪽

알래스카
 알래스카, 빅 레이크의 어네스틴 도널드슨, 레베카
 토드, 6월호, C14쪽

어린이(가족 관계 참조)
 어린 아이의 신앙, 토마스 에스 몬슨, 8월호, 2쪽
 어린이들을 가르침,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17쪽
 우리 자녀들에게 경전을 사랑하도록 가르침, 앤 지
 워스런, 7월호, 9쪽
 자녀들과 가족, 더블류 유진 헨슨, 7월호, 58쪽

에스더
 "이 때를 위하여", 메리 앨런 스무트, 1월호, 86쪽
여러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8월호, 14쪽
 폴 콕스-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함, 앤 빌링스,
 11월호, 32쪽
 하나의 힘-리그머 하이스트의 모범, 잔 유 핀보러와
 마빈 케이 가드너, 6월호, 8쪽

여성
 "딸아, 안심하라", 웨인 엠 헨콕, 1월호, 79쪽
 신앙이 깊은 여성, 5월호, 42쪽

역경
 거듭남, 제임즈 이 파우스트, 6월호, 2쪽
 구름 위에서, 클라우디아 아파레시다 아시스
 아우구스토, 9월호, 26쪽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널 에이
 맥스웰, 1월호, 22쪽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로버트
 디 헤일즈, 7월호, 75쪽
 승리, 8월호, 40쪽
 역경의 극복, 제임즈 이 파우스트, 5월호, 2쪽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52쪽

연차 대회
 보고 배우기: 연차 대회 활동, 4월호, C12쪽
영, 브리감(에 관한 기사)
 시각 보조 자료를 통한 브리감 영 생애의 탐구 여행,
 6월호, 36쪽
 "일곱 우리의 음성", 4월호, 26쪽

영국
 주님을 맨 먼저 생각함, 린다 반 오든, 11월호, 43쪽
영성(성신 참조)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티파니 로키어,

9월호, 24쪽

"주리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제프리 알
홀런드, 1월호, 64쪽

예수 그리스도(속죄, 신화, 부활 참조)

가장 크게 감사할 일, 새뮤얼 펄시퍼, 4월호, C14쪽

가장 훌륭한 성탄절 선물을 구함, 12월호, 7쪽

구세주에게 초점을 두고 부활절을 기억함, 리사 엠
그로버, 4월호, 16쪽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함, 로저 에이 헨드릭스, 12월호,
14쪽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행동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리차드 이 쿡, 7월호, 28쪽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십시오, 마가렛 디 네이들드,
7월호, 64쪽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시드니 레이놀즈, 3월호, C10쪽

성탄절이란 무엇입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12월호,
2쪽

승리, 8월호, 40쪽

아름다운 구세주, 10월호, C4쪽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조셉 비 워스런,
11월호, 46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디 제이 셔우드와 린다 셔우드, 11월호, C14쪽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12월호, 8쪽

"예수께 오라", 시드니 레이놀즈, 12월호, C8쪽

예수님 이야기, 리차드 엠 톱니, 4월호, 8쪽

예수님을 기억하며, 로버트 디 헤일즈, 1월호, 24쪽
와 보라, 제프리 알 홀런드, 8월호, 44쪽

우리는 주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4쪽

"자매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매님입니까?",
세리 엘 뉴, 1월호, 91쪽

제자와 친구가 됩시다, 리차드 시 에즐리, 7월호, 11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6월호, 25쪽

"주리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제프리 알
홀런드, 1월호, 64쪽

창문 그림, 로시 샌트론, 4월호, C14쪽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52쪽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 보이드 케이 패커,
12월호, 16쪽

예술

시각 보조 자료를 통한 브리감 영 생애의 탐구 여행,
6월호, 36쪽

신앙이 깊은 여성, 5월호, 42쪽

예언

밤이 없었던 그날, 메이블 존스 개보트, 12월호, C4쪽
예언자(예언, 계시 참조)

고대 축부사의 수명, 토마스 알 발레타, 3월호, 44쪽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조셉 레이 지
브릴런트스, 3월호, 10쪽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조셉 비 워스런, 46쪽

예언자를 따라라, 팻 켈시 그레이엄, 3월호, C6쪽

우리 예언자들의 침례 장소, 윌리엄 하틀리와 레베카
토드, 6월호, C2쪽

인간 아담, 로버트 엘 밀렛, 2월호, 14쪽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예언자에게 말씀하심, 시드니
레이놀즈, 2월호, C4쪽

육식, 델린 에이치(-에 관한 기사)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5월호, C2쪽

원전

왕국의 완전한 길, 테일 이 밀러, 7월호, 29쪽

요나

요나와 니스웨 백성, 비비안 폴슨, 9월호, C4쪽

요시아

요시아, 경전을 믿은 자, 비비안 폴슨, 8월호, C12쪽

용서(속죄, 회개 참조)

선물 교환, 질 테일러, 12월호, 46쪽

용서하는 마음, 로더릭 제이 린튼, 6월호, 28쪽

율법의 더 중한 바: 심판과 자비와 신앙, 제임스 이
파우스트, 1월호, 53쪽

질 용서해 주시겠어요? 패트리샤 에이치 모렐, 9월호,
7쪽

어린 친구를 위하여

가장 크게 감사할 일, 새뮤얼 펄시퍼, 4월호, C14쪽

로베르트는 잊지 않아요, 매튜 케닝튼과 대니엘

케닝튼, 11월호, C8쪽

창문 그림, 로시 샌트론, 4월호, C14쪽

우상 숭배

현대의 세간 우상을 숭배하기를 거부함, 테니스 라지,
3월호, 16쪽

우선 순위(목표, 가치 참조)

우정

가장 귀한 질문, 팻 메이여스, 10월호, 36쪽

내 손으로 신권을 행사함, 퓨코 레이, 9월호, 32쪽

잊을 수 없는 친구, 카산드라 린 차이, 3월호, 26쪽

질 용서해 주시겠어요? 패트리샤 에이치 모렐, 9월호,
7쪽

함께 나누는 기도, 사이언 오웬 베시, 6월호, 14쪽

우정 증진(재활동 촉진 참조)

가정 복음 교육 하나의 성역,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46쪽

고귀한 동반자들, 조셉 비 워스런, 1월호, 32쪽

"내 양을 먹이라", 헨리 비 아이어링, 1월호, 82쪽

백 번째 양, 제임스 에드워드 피더슨, 11월호, 22쪽
새로운 개종자를 보살피십시오, 칼 비 프랫, 1월호, 11쪽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사업,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9쪽

왜 모든 회원이 선교사리아만 합니까? 리차드 지
스코트, 1월호, 35쪽

태미 쿵의 자매, 트레이시 라이트, 5월호, C6쪽

워너, 수잔 엘(-에 관한 기사)

수잔 엘 워너, 10월호, C2쪽

유혹

"올은 일을 선택하라", 실러 알 우다드, 4월호, C8쪽
진리와 정의를 수호함, 엠 러셀 벨라드, 1월호, 37쪽

음악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 보이드 케이 패커,
12월호, 16쪽

우리의 태바내를 합창단, 지 피 로울러, 12월호, 36쪽
주님께 바치는 기도,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블로스

수아레스, 3월호, 28쪽

크리시의 노래, 하이디 클롬브, 8월호, C6쪽

용서

용서해 주시겠어요? 패트리샤 에이치 모렐, 9월호,
7쪽

의식(성악 참조)

이야기

5학년 슈퍼스타, 클레어 미슈커, 2월호, C8쪽

독자가 뛰어가는 이야기-미로, 로라 에스 쇼트리지,
3월호, C12쪽

비 제이의 비밀, 클레어 미시카, 12월호, C10쪽
축구공의 비밀, 엘마 제이 에이트, 10월호, C8쪽

크리시의 노래, 하이디 클롬브, 8월호, C6쪽

타일러의 명찰, 파트리샤 워녹, 9월호, C14쪽

태미 쿵의 자매, 트레이시 라이트, 5월호, C6쪽

인내(순종, 계명 참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닐 에이
맥스웰, 1월호, 22쪽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로버트
디 헤일즈, 7월호, 75쪽

여러 시대의 신앙의 개척자들, 메리 엘런 스무트,
1월호, 12쪽

일

"어찌로 수레 바퀴를 밀 듯이 부지런히 일함", 닐 에이
맥스웰, 7월호, 37쪽

주님의 바람, 존 에이치 그로버그, 마빈 케이 가드너,
10월호, 32쪽

일부만이 회원인 가족

아빠가 믿지 않으실 때, 3월호, 40쪽

자매에(상호부조회 참조)

“딸아, 안심하라”, 웨인 앤 헨콕, 1월호, 79쪽
청녀-자유의 깃발, 새론 지 라슨, 7월호, 93쪽
데미 콕의 자매, 트레이서 라이트, 5월호, C6쪽

자비

율법의 더 중한 바: 심판과 자비와 신앙,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53쪽

자연(지구 참조)

자유(자유리지 참조)

자유리지

구원의 계획 : 인생의 비행 계획, 듀엔 비 제라드, 1월호, 77쪽
독자가 뛰어가는 이야기-미로, 로라 에스 쇼트리지, 3월호, C12쪽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조셉 비 워스린, 11월호, 46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디 제이 셔우드와 린다 셔우드, 11월호, C14쪽
“옳은 일을 선택하라”, 실러 알 우다드, 4월호, C8쪽
자유리지와 분노, 린 지 로빈스, 7월호, 80쪽
확실한 도덕 지침이 되는 네 가지 절대적 진리, 리차드 비 워스린, 1월호, 9쪽

자존심(개인의 가치 참조)

재활등(우정 증진 참조)

나의 삶을 돌이킴, 후안 안토니오 플로레스, 5월호, 40쪽
다시 돌아옴, 돈 엘 설리, 5월호, 34쪽
왜 전에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 6월호, 34쪽
잘못된 첫인상, 오마 아브라함 아호메드 차베스, 8월호, 43쪽

전세계적인 교회

가족 사진, 5월호, 33쪽
전세계인을 위한 잡지, 마빈 케이 가드너, 10월호, 32쪽

전통

행복의 걸림돌을 제거함, 리차드 지 스코트, 7월호, 85쪽

정적(고결 참조)

“너희는 도덕질하지 말찌니라”, 리차드 디 드레이퍼, 10월호, 26쪽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로버트 제이 매튜즈, 11월호, 15쪽
축구공의 비밀, 엘마 제이 에이즈, 10월호, C8쪽

제자됨

제자와 친구가 됩시다, 리차드 시 에즐리,

7월호, 11쪽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17쪽

죄(회개 참조)

와 보라, 제프리 알 홀런드, 8월호, 44쪽

주일학교

교사, 영원한 열쇠, 해롤드 지 힐렘, 1월호, 62쪽

죽음(말씀 참조)

노을처럼 순수하게, 사라 바튼, 6월호, 7쪽

무능력

모범을 보임, 나탈리 루시 실바, 11월호, C12쪽

준비

선교사로 봉사함, 얼 시 텅기, 7월호, 39쪽
십대 자녀들을 해의 영광에 이르게 함,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1월호, 30쪽
준비하는 시간, 조셉 비 워스린, 7월호, 14쪽

지구

풀 콕스-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함, 앤 빌링스, 11월호, 32쪽

부활절(속죄, 부활 참조)

구세주에게 초점을 두고 부활절을 기억함, 리사 엠 그로버, 4월호, 16쪽
부활절 퀴즈, 4월호, C11쪽

지도력

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됨, 켈린 릅스 에덤스, 9월호, 34쪽
영적인 능력, 러셀 엠 넬슨, 1월호, C14쪽
잘못된 첫인상, 어마 아브라함 아호메드 차베스, 8월호, 43쪽
“하나님께서서 오신 선생”, 제프리 알 홀런드, 7월호, 25쪽

지식(진리 참조)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9월호, 2쪽
진리를 받음, 엘 톰 페리, 1월호, 60쪽
확실한 도덕 지침이 되는 네 가지 절대적 진리, 리차드 비 워스린, 1월호, 9쪽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함

모범을 보임, 나탈리 루시 실바, 11월호, C12쪽
불친절한 말, 니콜라 스텐지어, 2월호, C5쪽
새거스팀 가족, 콜리스 클레이튼, 5월호, C12쪽
어느 어린 선교사, 디앤 워커, 8월호, C10쪽

질문이 있는데오

고대 축복사의 수명, 토마스 알 발레타, 3월호, 44쪽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함, 로저 에이 핸드릭스, 12월호, 14쪽

바벨탑, 브리 덴 로저스와 데이비드 톨프 시리, 3월호,

46쪽

창조의 기간, 토마스 알 발레타, 3월호, 42쪽

질의 응답

만약 여러분이 교회 개혁자와 친척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까? 3월호, 10쪽
어떻게 우리 가정을 더욱 행복하고 영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8월호, 26쪽
우리는 경전에서 무엇을 상고해야 할까요? 5월호, 28쪽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11월호, 38쪽

찬송가(음악 참조)

창조

인간 아담, 로버트 엘 밀렛, 2월호, 14쪽
창조의 기간, 토마스 알 발레타, 3월호, 42쪽

청남

“보라, 이 사람이로다”, 키스 비 맥밀런, 1월호, 40쪽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49쪽

청녀

고마워요, 노라! 알바 스텔라 카나베탈 블란돈, 8월호, 24쪽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십시오, 마가렛 디 네이들드, 7월호, 64쪽
마음을 가족에게로 돌이킴, 마가렛 디 네이들드, 7월호, 89쪽
얼마나 친사에 가까운 존재입니까,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95쪽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함, 캐롤 비 토마스, 7월호, 91쪽
청녀-자유의 깃발, 새론 지 라슨, 7월호, 93쪽

청소년

십대 자녀들을 해의 영광에 이르게 함,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1월호, 30쪽

젠 자센 (-에 관한 기사)

나의 두 번째 침례, 쉐나 센과 마이클 제이 배어맨, 9월호, 8쪽

초등학교

초등학교-주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플랫폼 랜브제스, 6월호, 48쪽

축복사의 축복

주님은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심, 리차드 디 알레드, 1월호, 27쪽

친구 사귀기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자나이나 다 실바 산토스, 델빈 리빗, 12월호, C14쪽
- 아르헨타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후고 로페즈, 디엔 워커, 4월호, C2쪽
- 알래스카, 빅 레이크의 어네스틴 도널드슨, 레베카 토드, 6월호, C14쪽
- 키리바시의 아리에타나, 조이스 핀들레이, 10월호, C14쪽

친구가 친구에게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5월호, C2쪽
- 수잔 엘 워너, 10쪽, C2쪽
-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8월호, C2쪽
-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2월호, C2쪽

침례(성약 참조)

- 나야만, 침례와 씻음, 트래비스티 앤더슨, 6월호, 44쪽
- 나의 두 번째 침례, 첸 차 센과 마이클 제이 베이팬, 9월호, 8쪽
- 우리 예언자들의 침례장소, 윌리엄 하틀리와 레베카 토드, 6월호, C2쪽

ㄱ

콕스, 폴(-에 관한 기사)

- 폴 콕스-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함, 앤 빌링스, 11월호, 32쪽

크리스마스

- 가장 훌륭한 성탄절 선물을 구함, 12월호, 7쪽
- 구세주를 경축함, 로저 에이 헨드릭스, 12월호, 14쪽
- "땅에서는 평화", 대관장단이 전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성탄절 메시지, 12월호, C2쪽
- 보스의 크리스마스 선물, 멜리사 세드릭과 시라 레온 크리스틴슨, 12월호, C7쪽
- 선물 교환, 질 테일러, 12월호, 46쪽
- 성탄절이란 무엇입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12월호, 2쪽

키리바시

- 키리바시의 아리에타나, 조이스 핀들레이, 10월호, C14쪽

E

탐욕

- "너희는 탐내지 말지니", 브렌트 엘 탐, 12월호, 30쪽

탐험

- 우리 예언자들의 침례 장소, 윌리엄 하틀리와 레베카 토드, 6월호, C2쪽

태도

- 미소지어야 할 이유, 조 제이 크리스틴슨, 9월호, 28쪽
- 왜 전에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 6월호, 34쪽
-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11월호, 39쪽

텔레비전(매체 참조)

표

페레스, 에블린(-에 관한 기사)

- 에블린 페레스 : 참고 기단린 수확, 테리 크루시, 8월호, 7쪽

평화(성신 참조)

- "땅에서는 평화", 대관장단이 전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성탄절 메시지, 12월호, C2쪽

폭력

-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더 알 배시트, 9월호, 18쪽
- 폭력에 대하여 경계함, 해롤드 옥스, 5월호, 24쪽

프랑스

- 빛의 도시, 리차드 엠 토피니, 11월호, 10쪽

필리핀

- 리잘 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리 리브시, 5월호, 10쪽
-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조셉 레이 지 브릴런트스, 3월호, 10쪽
- "충실하고, 선하고, 덕스럽고, 참된 성도들" : 필리핀의 개척자들, 알 러니어 브릿쉬, 2월호, 40쪽

필멸

- 준비하는 시간, 조셉 비 위스틴, 7월호, 14쪽

ㅎ

하나님(신회 참조)

-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에스 마이클 윌콕스, 2월호, 26쪽

하나님의 왕국(시은 참조)

하이스트, 리그머(-에 관한 기사)

- 하나의 힘-리그머 하이스트의 모범, 잔 유 핀보러와 마빈 케니 가드너, 6월호, 8쪽

학대

- 치유로 가는 여정, 4월호, 42쪽

함께 나누는 시간

- 감사를 드림, 시드니 레이놀즈, 11월호, C6쪽
- 그 곳에 길이 있습니다, 4월호, C6쪽
- 그분께서 세계 말씀하십니다, 시드니 레이놀즈, 5월호, C4쪽
- 기도, 시드니 레이놀즈, 9월호, C12쪽

-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시드니 레이놀즈, 3월호, C10쪽
-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시드니 레이놀즈, 10월호, C6쪽
- 나의 약속 지키기, 시드니 레이놀즈, 8월호, C4쪽
- "여호와를 의뢰하고", 시드니 레이놀즈, 6월호, C8쪽
- "예수께 오라", 시드니 레이놀즈, 12월호, C8쪽
-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예언자에게 말씀하심, 시드니 레이놀즈, 2월호, C4쪽

행복

- 미소지어야 할 이유, 조 제이 크리스틴슨, 9월호, 28쪽
- 순종-위대한 삶의 도전, 도널드 엘 스타헬리, 7월호, 81쪽
- 행복의 걸림돌을 제거함, 리차드 지 스코트, 7월호, 85쪽

홍콩

- 웅장한 빛 : 홍콩의 개척자, 켈린 릭스 애덤스, 3월호, 14쪽

활동

- 나는 누구일까요? 물문경 퀴즈, 9월호, C8쪽
- 모세가 그의 백성을 가르침, 비비안 폴슨, 11월호, C10쪽
- 밤이 없었던 그날, 메이블 존스 게보트, 12월호, C4쪽
- 보고 배우기 : 연차 대회 활동, 4월호, C12쪽
- 신앙개조 짝짓기, 콜리스 클레이튼, 8월호, C8쪽
- 요나와 니스케 백성, 비비안 폴슨, 9월호, 4쪽
- 요시아, 경전을 믿은 자, 비비안 폴슨, 8월호, C12쪽
- 자수품, 줄리 와델, 6월호, C11쪽
- 창문 그림, 로시 샌트론, 4월호, C14쪽
- 크리스마스 장식품, 12월호, C13쪽
- 부활절 퀴즈, 4월호, C11쪽

회개(속죄, 죄 참조)

- 공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9월호, C2쪽
- 구원의 계획 : 인생의 비형 계획, 듀엔 비 제라드, 1월호, 77쪽
- 나야만, 침례와 씻음, 트래비스티 앤더슨, 6월호, 44쪽
- 나의 삶을 돌이킴, 후안 안토니오 플로레스, 5월호, 40쪽
- 왜 전에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 6월호, 34쪽

회복

- 간증,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69쪽
- 불확실한 것을 극복하고 진리에 대해 확신하게 됨, 리차드 이 탈리 일세, 7월호, 83쪽

힝클리, 고든 비(-에 관한 기사)

-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조셉 레이 지 브릴런트스, 3월호, 10쪽
- 영적인 능력, 레셀 엠 벨슨, 1월호, 14쪽

저자별 색인

ㄱ

가드너, 마빈 케이

전세계인을 위한 잡지, 10월호, 32쪽

개보트, 메이블 존스

밤이 없었던 그 날, 12월호, C4쪽

골드럽, 레이

"가만히 있거라," 8월호, C14쪽

골드럽, 잭 에이브럼

"가만히 있거라," 8월호, C14쪽

구티레스, 로날 나바로

영에 이끌려 나아감, 11월호, 8쪽

그레미엄, 팻 켈시

예언자를 따라라, 3월호, C6쪽

그로버, 리사 엠

구세주에게 초점을 두고 부활절을 기억함, 4월호, 16쪽

자신의 두 발로, 3월호, 34쪽

낙원 : 바하마, 8월호, 36쪽

그로버그, 존 에이치

주님의 바람, 3월호, C16쪽

L

네이들드, 마가렛 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십시오, 7월호, 64쪽

마음을 가족에게로 돌이킴, 7월호, 89쪽

넬슨, 러셀 엠

새로운 추수의 시기, 7월호, 34쪽

영적인 능력, 1월호, 14쪽

노인슈안더, 데니스 비

동유럽에 뿌리 내린 복음에 대한 회고, 10월호, 38쪽

닐슨, 제나

토요일은 봉사하는 날, 8월호, 10쪽

C

대관장단

"평에서는 평화", 대관장단이 전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성탄절 메시지, 12월호, C2쪽

데일리, 베스

에스더의 마지막 선물, 9월호, 46쪽

도널드슨, 리

바벨탑, 3월호, 46쪽

듀, 셰리 엘

"자매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매님 입니까?"

1월호, 91쪽
드레이퍼, 리차드 디

"너희는 도덕질하지 말찌니라," 10월호, 26쪽

ㄴ

리슨, 새론 지

청녀-자유 의 것발, 7월호, 93쪽

라이트, 트레이시

테미 쿵의 자매, 5월호, C6쪽

라지, 데니스

현대의 새긴 우상을 숭배하기를 거부함,
3월호, 16쪽

랜브제스, 플랫

초등학교-주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6월호, 48쪽

레이, 퓨코

내 손으로 신권을 행사함, 9월호, 32쪽

레이놀즈, 시드니

감사드림, 11월호, C6쪽

그 곳에 길이 있습니다, 4월호, C6쪽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5월호, C4쪽

기도, 9월호, C12쪽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3월호, C10쪽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다, 10월호, C6쪽

나의 약속 지키기, 8월호, C4쪽

"여호와를 의뢰하고," 6월호, C8쪽

"예수께 오라", 12월호, C8쪽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예언자에게 말씀하심, 2월호, C4쪽

로빈슨, 린 지

자유 의지와 분노, 7월호, 80쪽

로울러, 진 피

우리의 태버나클 합창단, 12월호, 36쪽

로저스, 브이 덴

바벨탑, 3월호, 46쪽

로키어, 티파니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9월호, 24쪽

롬니, 리차드 엠

빛의 도시, 11월호, 10쪽

예수님 이야기, 4월호, 8쪽

리브시, 로리

가서 행하겠나이다, 2월호, 8쪽

리잘 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월호, 10쪽

리빗, 멜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자나이나 다 실바 산토스,
12월호, C14쪽

린튼, 로더릭 제이

용서하는 마음, 6월호, 28쪽

ㄷ

미쉬, 더블류 제프리

"간음하지 말찌니라," 8월호, 18쪽

마틴슨, 마크 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가?", 12월호, 28쪽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가족 :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0월호, 24쪽

매튜스, 로버트 제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11월호,
14쪽

맥말린, 키스 비

"보라, 이 사람이다," 1월호, 40쪽

맥스웰, 닐 에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1월호, 22쪽

"어깨로 수레 바퀴를 밀 듯이 부지런히 일함,"

7월호, 37쪽

메이너즈, 리차드 제이

십대 자녀들을 해의 영광에 이르게 함,

1월호, 30쪽

메이여스, 팻

가장 귀한 질문, 10월호, 36쪽

모렐, 패트리샤 에이치

질 용서해 주시겠어요? 9월호, 7쪽

몬슨, 토마스 에스

가정 복음 교육-하나의 성역, 1월호, 46쪽

"보라, 네 어머니라," 4월호, 2쪽

상호부조회라는 강한 힘, 1월호, 94쪽

성탄절이란 무엇입니까?, 12월호, 2쪽

안전하지 못함, 7월호, 46쪽

어린 아이의 신앙, 8월호, 2쪽

어린이들을 가르침, 1월호, 17쪽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겠느냐? 2월호, 2쪽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7월호, 52쪽

미시카, 클레어

비 제이의 비밀, 12월호, C10쪽

5학년 슈퍼스타, 2월호, C8쪽

밀러, 데일 이

왕국의 완전한 길, 7월호, 29쪽

밀렛, 로버트 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함, 4월호, 18쪽

인간 아담, 2월호, 14쪽

ㅂ

바튼, 시라
 노을처럼 순수하게, 6월호, 7쪽

반 오든, 린다
 주님을 맨 먼저 생각함, 11월호, 42쪽

발만, 디어드르 지
 주님의 약속을 증명해 보임, 12월호, 26쪽

베시트, 아더 알
 "살인하지 말찌니라," 9월호, 18쪽

벨라드, 엠 러셀
 주님의 놀라운 계시, 7월호, 31쪽
 진리와 정의를 수호함, 1월호, 37쪽

벨레타, 토마스 알
 창조의 기간, 3월호, 42쪽
 고대 축복사의 수명, 3월호, 44쪽

베시, 사이언 오웬
 함께 나누는 기도, 6월호, 14쪽

베어맨, 마이클 제이
 나의 두 번째 침례, 9월호, 8쪽

베컴, 재닛 헤일즈
 신앙을 실현시키, 1월호, 75쪽

브라우닝, 게리
 러시아에서 신앙의 유산, 4월호, 32쪽

브릴런트스, 조셉 레이 지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3월호, 10쪽

브릿쉬, 알 러니어
 "충실하고, 선하고, 덕스럽고, 참된 성도들" :
 필리핀의 개척자들, 2월호, 40쪽

블런든, 알바 스텔라 카나베랄
 고마워요, 노라! 8월호, 24쪽

빌링스, 앤
 폴 콕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함, 11월호, 32쪽
 사사 스트라코바, 10월호, 8쪽
 하나의 힘-리그머 하이스트의 모범, 6월호, 8쪽

人

샬리, 돈 엘
 다시 돌아옴, 5월호, 34쪽

세드릭, 멜리사
 보스의 크리스마스 선물, 12월호, C7쪽

센트론, 로시
 창문 그림, 4월호, C14쪽

셔우드, 디 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실까?
 11월호, C14쪽

셔우드, 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11월호, C14쪽

소트리지, 로라 에스
 독자가 뛰어가는 이야기-미로, 3월호, C12쪽

수아레스,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블로스
 주님께 바치는 기도, 3월호, 28쪽

스무트, 메리 옐런
 여러 시대의 신앙의 개척자들, 1월호, 12쪽
 "이 때를 위하여," 1월호, 86쪽

스코트, 리차드 지
 왜 모든 회원이 선교사라야만 합니까? 1월호, 35쪽
 행복의 걸림돌을 제거함, 7월호, 85쪽

스타헬라, 도널드 엘
 순종-위대한 삶의 도전, 7월호, 81쪽

스탠지어, 니콜라
 불친절한 말, 2월호, C5쪽

실리, 데이비드 볼프
 바벨탑, 3월호, 46쪽

실바, 너탈리 루시
 모범을 보임, 11월호, C12쪽

○

아이어링, 헨리 비
 가족, 10월호, 12쪽
 "내 양을 먹이라," 1월호, 82쪽
 하나가 되기 위하여, 7월호, 66쪽

알레드, 리차드 디
 주님은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심, 1월호, 27쪽

알레드, 에일린 머피
 할아버지의 기도, 3월호, C4쪽

애덤스, 켈린 리кс
 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됨, 9월호, 34쪽
 응 캣 히 : 홍콩의 개척자, 3월호, 12쪽

앤더슨, 트레비스 티
 나아만, 침례와 씻음, 6월호, 44쪽

아우구스토, 클라우디아 아파레시다 아시스
 구름 위에서, 9월호, 26쪽

에즐리, 리차드 시
 제자와 친구가 됩시다, 7월호, 11쪽

에이츠, 엘마 제이
 축구공의 비밀, 10월호, C8쪽
 옥든, 디 켈리
 안식일을 기억하라, 5월호, 16쪽

옥스, 델린 에이치
 개척자들을 따름, 1월호, 72쪽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7월호, 55쪽

옥스, 해롤드
 폭력에 대하여 경계함, 5월호, 24쪽

와델, 줄리
 자수품, 6월호, C11쪽

와이트, 틱 손
 나의 전용 응급 구조단, 2월호, 34쪽

요한슨, 재키
 아버지의 사랑, 9월호, C10쪽

우다드, 실러 알
 "올은 일을 선택하라," 4월호, C8쪽

워낙, 파트리샤
 타일러의 명찰, 9월호, C14쪽

워스런, 리차드 비
 확실한 도덕 지침이 되는 네 가지 절대적 진리, 1월호, 9쪽

워스런, 앤 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전을 사랑하도록 가르침,
 7월호, 9쪽

워스런, 조셉 비
 고귀한 동반자들, 1월호, 32쪽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1월호, 46쪽
 준비하는 시간, 7월호, 14쪽

워커, 디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휴고 로페즈,
 4월호, C2쪽
 아르헨티나의 당면 과제, 9월호, C10쪽
 어느 어린 선교사, 8월호, C10쪽

월콕스, 에스 마이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월호, 26쪽

ㄷ

제라드, 듀엔 비
 구원의 계획 : 인생의 비행 계획, 1월호, 77쪽

젠슨, 버지니아 유
 안전한 장소를 마련함, 1월호, 89쪽

줄리, 제이 켄트
 복음의 보편적인 적용, 1월호, 80쪽

ㄸ

치베스, 오마 아브라함 아흐메드
 잘못된 첫인상, 8월호, 43쪽

차이, 카산드라 린
 잊을 수 없는 친구, 3월호, 26쪽

첸, 자센
 나의 두 번째 침례, 9월호, 8쪽

케닝튼, 대니엘

로베르토는 잊지 않아요, 11월호, C8쪽

케닝튼, 매튜

로베르토는 잊지 않아요, 11월호, C8쪽

클, 에런 에이

가정: 피난처와 성소, 1월호, 28쪽

클, 리처드 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행동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7월호, 28쪽

크루시, 테리

에블린 페레스: 참고 기다린 수확, 8월호, 7쪽

크리스텐슨, 사라 레온

보스의 크리스마스 선물, 12월호, C7쪽

크리스텐슨, 조 제이

미소지어야 할 이유, 9월호, 28쪽

클레이튼, 폴리스

구약전서 이야기 주머니, 10월호, C13쪽

새거스팀 가족, 5월호, C12쪽

신앙개조 짝짓기, 8월호, C8쪽

클룸브, 하이다

크리시의 노래, 8월호, C6쪽

킨드레드, 쉬일리

만약에? 2월호, 24쪽

탐, 브렌트 엘

"너희는 탐내지 말찌니", 12월호, 30쪽

털리, 리처드 이 일세

불확실한 것을 극복하고 진리에 대해 확신하게 될, 7월호, 83쪽

테일러, 질

선물 교환, 12월호, 46쪽

토드, 레베카

알래스카, 빅 레이크의 에네스틴 도널드슨, 6월호, C14쪽

우리 예언자들의 침례장소, 6월호, C2쪽

초원의 불, 11월호, C2쪽

토마스, 제닛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12월호, 40쪽

아름다운 바하마의 개척자들, 8월호, 30쪽

토마스, 캐롤 비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함, 7월호, 91쪽

팅기, 알 시

선교사로 봉사함, 7월호, 39쪽

파우스트, 제임즈 이

감사하는 마음, 11월호, C5쪽

거듭남, 6월호, 2쪽

미래의 개척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1월호, 42쪽

얼마나 천사에 가까운 존재입니까, 7월호, 95쪽

역경의 축복, 5월호, 2쪽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치 않는다," 7월호, 43쪽

율법의 더 중한 바: 심판과 자비와 신앙, 1월호, 53쪽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9월호, 2쪽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마음을 아시며, 7월호, 17쪽

패러모어, 제임즈 엠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7월호, 41쪽

패커, 보이드 케이

주 섬기라, 1월호, 6쪽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 12월호, 16쪽

상호부조회, 7월호, 72쪽

펠시퍼, 새뮤얼

가장 크게 감사할 일, 4월호, C14쪽

페리, 엘 톰

진리를 받음, 1월호, 60쪽

신앙개조, 7월호, 22쪽

페이지, 데니스

장미처럼 피어나리라, 6월호, C4쪽

가정의 밤 보물 찾기, 5월호, C10쪽

포올맨, 로널드 이

십일조: 특권, 7월호, 78쪽

폴슨, 비비안,

요나와 니스웨 백성, 9월호, C4쪽

요시아, 경전을 믿은 자, 8월호, C12쪽

모세가 그의 백성을 가르침, 11월호, C10쪽

구약전서 이야기 주머니, 10월호, C13쪽

프렛, 칼 비

새로운 개종자를 보살피십시오, 1월호, 11쪽

플로레스, 후안 안토니오

나의 삶을 돌이킵, 5월호, 40쪽

피터슨, 제임즈 에드워드

백 번째 양, 11월호, 22쪽

핀들레이, 조이스

키리바시의 아리에타나, 10월호, C14쪽

핀보러, 잔유

하나의 힘-리그머 하이스트의 모범, 6월호, 8쪽

하틀리, 윌리엄

우리 예언자들의 침례 장소, 6월호, C2쪽

하펜, 브루스 시

자녀들의 마음에 약속을 심어줌, 6월호, 16쪽

한슨, 더블류 유진

자녀들과 가족, 7월호, 58쪽

한콕, 웨인 엠

"딸아, 안심하라," 1월호, 79쪽

헤이고, 케이

가장 훌륭한 가족으로부터, 5월호, 48쪽

헤이트, 데이비드 비

계명대로 생활하라, 7월호, 6쪽

순종의 찬송: "모든 것 잘되리," 1월호, 70쪽

헤일즈, 로버트 디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함, 12월호, 14쪽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7월호, 75쪽

예수님을 기억하며, 1월호, 24쪽

헨드릭스, 로저 에이

홀런드, 제프리 알

와 보라, 8월호, 44쪽

"주리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1월호, 64쪽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7월호, 25쪽

후토, 케리 제인

교사를 위한 여섯가지 제언, 3월호, 24쪽

힐렘, 해롤드 지

교사, 영원한 열쇠, 1월호, 62쪽

힝클리, 고든 비

간증, 7월호, 69쪽

공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9월호, C2쪽

몸소 실천하는 말일성도, 1월호, 85쪽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1월호, 67쪽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 줄 새로운 성전들, 7월호, 87쪽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 2월호, 12쪽; 5월호, 26쪽; 6월호, 26쪽; 8월호, 16쪽; 9월호, 16쪽; 12월호, 38쪽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사업, 1월호, 49쪽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3월호, 2쪽

영감에 찬 생각, 11월호, 2쪽

영을 먹이고 영혼을 살찌움, 10월호, 2쪽

우리는 주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7월호, 4쪽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7월호, 49쪽

주님께 더욱 가까워짐, 1월호, 4쪽

5학년 슈퍼스타

클레어 미쉬커, 2월호, C8쪽

7

"가만히 있거라"

잠 에이브럼 골드럽이 레이 골드럽에게 한 이야기,
8월호, C14쪽

가서 행하겠나이다

로리 리브시, 2월호, 8쪽

가장 귀한 질문

팻 메이여스, 10월호, 36쪽

가장 크게 감사할 일

새뮤엘 펄시퍼, 4월호, C14쪽

가장 훌륭한 가족으로부터

케이 헤이고, 5월호, 48쪽

가장 훌륭한 성탄절 선물을 구함

12월호, 7쪽

가장 복음 교육 -하나의 성역

토마스 에스 문슨, 1월호, 46쪽

가장: 피난처와 성소

에런 에이 콜, 1월호, 28쪽

가정의 밤 보물 찾기

테니스 페이지, 5월호, C10쪽

가족

헨리 비 아이어링, 10월호, 12쪽

가족 사진

5월호, 33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10월호, 24쪽

"간음하지 말찌니라"

더블류 제프리 마쉬, 8월호, 18쪽

간증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69쪽

감사를 드림

시드니 레이놀즈, 11월호, C6쪽

감사하는 마음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호, C5쪽

개척자를 따름

델린 에이치 옥스, 1월호, 72쪽

거듭남

제임즈 이 파우스트, 6월호, 2쪽

계명대로 생활하라

데이비드 비 헤이트, 7월호, 6쪽

고귀한 동반자들

조셉 비 위스린, 1월호, 32쪽

고대 축복사의 수명

토마스 알 벨레타, 3월호, 44쪽

고마워요, 노래!

엘바 스텔라 카나베랄 블란도, 8월호, 24쪽

공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9월호, C2쪽

"교사, 영원한 열쇠"

해롤드 지 힐렘, 1월호, 62쪽

교사를 위한 여섯 가지 제언

케리 제인 후트, 3월호, 24쪽

구름 위에서

클라우디아 아파레시다 아시스 아우구스토, 9월호,
26쪽

구세주에게 초점을 두고 부활절을 기억함

리사 엠 그로버, 4월호, 16쪽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함

로저 에이 헨드릭스, 12월호, 14쪽

구약전서 이야기 주머니

비비안 폴슨과 콜리스 클레이튼, 10월호, C13쪽

구원의 계획: 인생의 비행 계획

듀엔 비 제라드, 1월호, 77쪽

그 곳에 길이 있습니다

시드니 레이놀즈, 4월호, C6쪽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시드니 레이놀즈, 5월호, C4쪽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행동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리차드 이 쿡, 7월호, 28쪽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십시오

마가렛 디 네이돌드, 7월호, 64쪽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닐 에이 맥스웰, 1월호, 22쪽

기도

시드니 레이놀즈, 9월호, C12쪽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세요

티파니 로키어, 9월호, 24쪽

L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에스 마이클 윌콕스, 2월호 26쪽

나는 누구일까요? 물론경 퀴즈

9월호, C8쪽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시드니 레이놀즈, 10월호, C6쪽

나이만, 침례와 씻음

트래비스 티 앤더슨, 6월호, 44쪽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

9월호, 25쪽

나의 두번째 침례

첸 자센과 마이클 제이 베어맨, 9월호, 8쪽

나의 삶을 돌이킴

후안 안토니오 플로레스, 5월호, 40쪽

나의 약속 지키기

시드니 레이놀즈, 8월호, C4쪽

나의 전용 응급 구조단

티 혼 화이트, 2월호, 34쪽

낙원: 바히마

리사 엠 그로버, 8월호, 36쪽

내 말을 연구하라

3월호, 25쪽

내 손으로 신권을 행사함

퓨코 레이, 9월호, 32쪽

"내 양을 먹이라"

헨리 비 아이어링, 1월호, 82쪽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가...?"

마크 이 마틴슨, 12월호, 28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11월호, 25쪽

"너희가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8월호, 14쪽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리차드 디 드레이터, 10월호, 26쪽

"너희는 탐내지 말지니라"

브랜트 엘 탐, 12월호, 30쪽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로버트 제이 매튜즈, 11월호, 14쪽

노을처럼 순수하게

사라 바튼, 6월호, 7쪽

뉴스 속의 친구들

3월호, C8쪽; 9월호, C6쪽

C

다시 돌아옴

돈 엘 설리, 5월호, 34쪽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델린 에이치 옥스, 7월호, 55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5월호, C2쪽

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됨

켈린 릭스 애덤스, 9월호, 34쪽

독자가 읽어 가는 이야기-미로

로라 에스 쇼트리지, 3월호, C12쪽
동유럽에 뿌리 내린 복음에 대한 회고
테니스 비 노인슈안더, 10월호, 38쪽

"딸아 안심하라"
웨인 엠 헨콕, 1월호, 79쪽

"땅에서는 평화": 대관장단이 전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성탄절 메시지
12월호, C2쪽

ㄹ

러시아에서의 신앙의 유산
캐리 브라우닝, 4월호, 32쪽

로베르토는 잊지 않아요
매투 케닝턴과 대니엘 케닝튼, 11월호, C8쪽

리잘 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리 지브시, 5월호, 10쪽

ㄱ

마음을 가족에게로 돌리긴
마가렛 디 네이플드, 7월호, 89쪽

만약 여러분이 교회 개척자와 친척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까?
3월호, 30쪽

만약에?
쉬일러 킨드레드, 2월호, 24쪽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조셉 레이 지 브릴런트스, 3월호, 10쪽

모로니와 그의 가르침
3월호, C2쪽

모범을 보임
나탈리 루시 실바, 11월호, C12쪽

모세가 그의 백성을 가르침
비비안 폴슨, 11월호, C10쪽

물문경 약속
4월호, C5쪽

물문경이 나온 과정
5월호, C14쪽

물문과 그의 가르침
2월호, C12쪽

몸소 실천하는 말일성도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85쪽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67쪽

미래의 개척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42쪽

미소지여야 할 이유
조 제이 크리스틴슨, 9월호, 28쪽

ㅂ

바벨탑
리 도너드슨, 브이 덴 로저스와 데이비드 볼프 실리의
대답, 3월호, 46쪽

밤이 없었던 그날
마벨 존스 가보트, 12월호, C4쪽

백 번째 양
제임즈 에드워드 페터슨, 11월호, 22쪽

보고 배우기: 연차 대회 활동
4월호, C12쪽

"보라 네 어머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4월호, 2쪽

"보라 이 사람이로다"
키스 비 맥멀린, 1월호, 40쪽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로버트 디 헤일즈, 7월호, 75쪽

보스의 크리스마스 선물
멜리사 세드릭과 사라 레온 크리스틴슨,
12월호, C7쪽

복음의 보편적인 적용
제이 켈트 줄리, 1월호, 80쪽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 줄 새로운 성전들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87쪽

부활절 퀴즈
4월호, C11쪽

불친절한 말
니콜라 스탠저어, 2월호, C5쪽

불확실한 것을 극복하고 진리에 대해 확신하게 됨
리처드 이 털리 일세, 7월호, 83쪽

비 제이의 비밀
클레어 미시카, 12월호, C10쪽

빛의 도시
리처드 엠 롬니, 11월호, 10쪽

ㅅ

사샤 스트라코바
마빈 케이 가드, 10월호, 8쪽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
2월호, 12쪽; 5월호 26쪽; 6월호 26쪽; 8월호 16쪽;

9월호 16쪽; 12월호 38쪽
"살인하지 말찌니라"
아더 알 배시트, 9월호, 18쪽

상호부조치
보이드 케이 패커, 7월호, 72쪽

상호부조치라는 강한 힘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94쪽

새거스팀 가족
콜리스 클레이튼, 5월호, C12쪽

새로운 개종자를 보살피십시오
칼 비 프랫, 1월호, 11쪽

새로운 추수의 시기
러셀 엠 넬슨, 7월호, 34쪽

선교사로 봉사함
얼 시 텅기, 7월호, 39쪽

선물 교환
질 테일러, 12월호, 46쪽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
8월호, 25쪽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룩함
11월호, 26쪽

성약을 맺고 복음 의식을 받음으로써 시온을 건설함
5월호, 25쪽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9쪽

성탄절이란 무엇입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12월호, 2쪽

수잔 엘 워너
10월호, C2쪽

순종-위대한 삶의 도전
도널드 엘 스타켄리, 7월호, 81쪽

순종의 찬송: "모든 것 잘되리"
데이비드 비 체이트, 1월호, 70쪽

승리
8월호, 40쪽

시각 보조 자료를 통한 브리감 영 생애의 탐구 여행
6월호, 36쪽

신앙개조
엘 톰 페리, 7월호, 22쪽

신앙개조 짚기
콜리스 클레이튼, 8월호, C8쪽

신앙을 실현시킴
재닛 헤일즈 베켄, 1월호, 75쪽

신앙이 깊은 여성
5월호, 42쪽

심심풀이
2월호, C11쪽; 3월호, C6쪽; 5월호 C10쪽; 6월호

C10쪽; 10월호 C13쪽
십대 자녀들을 해의 영광에 이르게 함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1월호, 30쪽

입일조: 특권
로날드 이 포울맨, 7월호, 78쪽
십일조의 법을 준수함
12월호, 25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휴고 로페즈
디엔 워커, 4월호, C2쪽
아르헨티나의 당면 과제
디엔 워커, 9월호, 10쪽
아름다운 구세주
10월호 C4쪽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제닛 토마스, 12월호, 40쪽
아름다운 바하마의 개척자들
제닛 토마스, 8월호, 30쪽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고든 비 힝클리, 3월호, 2쪽
아버지의 사랑
재키 요한슨, 9월호, C10쪽
아빠가 믿지 않을 때
3월호, 40쪽
안식일을 기억하라
디 켈리 옥든, 5월호, 16쪽
안전하지 못함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46쪽
안전한 장소를 마련함
버지니아 유 켄슨, 1월호, 89쪽
알래스카, 빅 레이크의 어네스틴 도널드슨
레베카 토드, 6월호, C14쪽
"어째로 수레바퀴를 밀듯이 부지런히 일함"
닐 에이 맥스웰, 7월호, 37쪽
어느 어린 선교사
디엔 워커, 8월호, C10쪽
어떻게 우리 가정을 더욱 행복하고 영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8월호, 26쪽
어린 아이의 신앙
토마스 에스 몬슨, 8월호, 2쪽
어린이들을 가르침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17쪽
얼마나 천사에 가까운 존재입니까?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95쪽
에블린 페레스: 참고 기다린 수확
텔리 크루시, 8월호, 7쪽
에스더의 마지막 선물

베스 데일리, 9월호, 46쪽
여기가 바로 그 곳이다
3월호, 33쪽
여러 시대의 신앙의 개척자들
매리 엘런 스무트, 1월호, 12쪽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조셉 비 위스틴, 11월호, 46쪽
"여호와를 의뢰하고"
시드니 레이놀즈, 6월호, C8쪽
역경의 축복
제임즈 이 파우스트, 5월호, 2쪽
영감에 찬 생각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2쪽
영에 이끌려 나아감
로날 나바로 구티레스, 11월호, 8쪽
영을 먹이고 영혼을 살찌움
고든 비 힝클리, 10월호, 2쪽
영적인 능력
리셀 엠 넬슨, 1월호, 14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디 제이 셔우드와 린다 셔우드, 4월호, C14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시드니 레이놀즈, 3월호, C10쪽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12월호, 8쪽
"예수께 오라"
시드니 레이놀즈, 12월호, C8쪽
예수님 이야기
리차드 엠 롬니, 4월호, 8쪽
예수님을 기억하여
로버트 디 헤일즈, 1월호, 24쪽
예언자를 따르라
팻 켈시 그레이엄, 3월호, C6쪽
"올은 일을 선택하라"
실러 알 우다드, 4월호, C8쪽
와 보라
제프리 알 홀런드, 8월호, 44쪽
왕국의 완전한 길
데일 이 밀러, 7월호, 29쪽
왜 모든 회원이 선교사라면 합니까?
리차드 지 스코트, 1월호, 35쪽
왜 전에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
6월호, 34쪽
오나와 니스웨 백성
비비안 폴슨, 9월호, C4쪽
아시아, 경전을 믿은 자
비비안 폴슨, 8월호, C12쪽

용서하는 마음
로더릭 제이 린튼, 6월호, 28쪽
우리 예언자들의 침례 장소
윌리엄 하틀리와 레베카 토드, 6월호, C2쪽
우리 자녀들에게 경전을 사랑하도록 가르침
앤 지 워스틴, 7월호, 9쪽
우리는 경전에서 무엇을 상고해야 할까요?
5월호, 28쪽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43쪽
우리는 주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4쪽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겠느냐?
토마스 에스 몬슨, 2월호, 2쪽
우리의 태바네를 합창단
진 피 로울러, 12월호, 36쪽
웅 컷 왕: 홍콩의 개척자
켈린 릭스 애덤스, 3월호, 12쪽
"이 때를 위하여"
매리 엘런 스무트, 1월호, 86쪽
인간 아담
로버트 엠 밀렛, 2월호, 14쪽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11월호, 38쪽
"일곱 우뢰의 음성"
4월호, 26쪽
잊을 수 없는 친구
카산드라 린 차이, 3월호, 26쪽



자녀들과 가족
더블류 유진 쉐슨, 7월호, 58쪽
자녀들의 마음에 약속을 심어 줌
브루스 시 하펜, 6월호, 16쪽
"자매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매님입니까?"
셰리 엘 듀, 1월호, 91쪽
자수품
줄리 와델, 6월호, C11쪽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강화시킴
8월호, 4쪽
자신의 두 발로
리사 엠 그로버, 3월호, 34쪽
자유의지와 분노
린 지 로반스, 7월호, 80쪽
잘못된 첫인상

오마 아브라함 아호메드 차베스, 8월호, 43쪽

장미처럼 피어나리라

데니스 페이지, 6월호, C4쪽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건강한 생활을 함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49쪽

책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8월호, C2쪽

전세계의 성전

2월호, 38쪽

전세계인을 위한 집지

마빈 케이 가드너, 10월호, 32쪽

절 용서해 주시겠어요?

패트리샤 에이치 모렐, 9월호, 7쪽

제자와 친구가 됩시다

리차드 시 에즐리, 7월호, 11쪽

주 섬기라

보이드 케이 패커, 1월호, 6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6월호, 25쪽

주님께 더욱 가까워짐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4쪽

주님께 바치는 기도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볼로스 수아레스, 3월호, 28쪽

주님은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심

리차드 디 알레드, 1월호, 27쪽

주님을 맨 먼저 생각함

린다 반 오든, 11월호, 42쪽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함

로버트 엘 밀렛, 4월호, 18쪽

주님의 놀라운 계시

엠 러셀 벨라드, 7월호, 31쪽

주님의 바람

존 에이치 그로버그, 3월호, C16쪽

주님의 약속을 증명해 보임

디어도르 지 발만, 12월호, 26쪽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을 준행함

2월호, 25쪽

"주리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제프리 알 홀런드, 1월호, 64쪽

준비하는 시간

조셉 비 위스린, 7월호, 14쪽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53쪽

진리를 받음

엘 톰 페리, 1월호, 60쪽

진리와 정의를 수호함

엠 러셀 벨라드, 1월호, 37쪽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캐롤 비 토마스, 7월호, 91쪽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제임즈 엠 페러모어, 7월호, 41쪽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

4월호, 25쪽

ㅈ

장문 그림

로시 샌트론, 4월호, C14쪽

창조의 기간

토마스 알 벨레타, 3월호, 42쪽

청녀-자유와 깃발

새론 지 라슨, 7월호, 93쪽

초등학교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플랫 랜브레드, 6월호, 48쪽

초원의 불

레베카 토드, 11월호, C2쪽

축구공의 비밀

엘마 제이 에이츠, 10월호, C8쪽

"충실하고 선하고 덕스럽고 참된 성도들":

필리핀의 개척자들

알 러니어 브릿쉬, 2월호, 40쪽

치유로 가는 여정

4월호, 42쪽

친구 사귀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자나이다

다 실바 산토스 멜린 리벳, 12월호, C14쪽

ㅋ

크리스마스 장식품

12월호, C13쪽

크리스의 노래

하이디 클롬브, 8월호, C6쪽

키리바시의 아리에타나

조이스 핀들레이, 10월호, C14쪽

ㅅ

타일리의 명찰

패트리샤 위녹, 9월호, C14쪽

태미 콕의 자매

트레이시 라이트, 5월호, C6쪽

토요일은 봉사하는 날

제나 닐슨, 8월호, 10쪽

ㅍ

폭력에 대하여 경계함

해롤드 옥스, 5월호, 24쪽

폴 콕스 -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함

앤 빌링스, 11월호, 32쪽

ㅎ

하나가 되기 위하여

헨리 비 아이어링, 7월호, 66쪽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

제프리 알 홀런드, 7월호, 25쪽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예언자에게 말씀하심

시드니 레이놀즈, 2월호, C4쪽

하나님의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52쪽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17쪽

하나의 힘-리그머 하이스터의 모범

잔 유 핀보러와 마빈 케이 가드너, 6월호, 8쪽

할아버지의 기도

에일린 퍼피 알레드, 3월호, C4쪽

함께 나누는 기도

사이언 오웬 베시, 6월호, 14쪽

함께 나누는 시간

시드니 레이놀즈, 11월호, C6쪽

해의 왕국의 결혼

10월호, 25쪽

행복의 결림들을 제거함

리차드 지 스크트, 7월호, 85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2월호, C2쪽

현대의 세간 우상을 숭배하기를 거부함

데니스 라지, 3월호, 16쪽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

보이드 케이 패커, 12월호, 16쪽

확실한 도덕 지침이 되는 네 가지 절대적 진리

리차드 비 위스린, 1월호, 9쪽

십일조의 법을 준수함

주님은 1838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교리와 성약 119:4)고 지시하셨다. 그 후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선언했다. “십일조의 법은… 인간의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즉 그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원한 율법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155쪽)

약속이 따른 계명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십일조를 바친다면 주님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라고 약속하셨다.

대공황 동안에 미국의 루이스 켈리 자매는 농장에 살면서 딸기를 재배했다. 루이스네 가족의 수입은 농작물 판매에 달려 있었다. 한 절기 동안에 딸기를 팔아서 번 40달러는 그들이 오랫동안 만져 보는 유일한 현금이었다. 그중에 십일조로 내는 4달러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네 자녀가 있는 이 가족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었다. 그러나 루이스는 십일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

는 즉시 주어지는 어떤 축복보다는 율법을 준수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렇지만 그 이듬해 그 지역에 딸기 잎사귀 병이 돌았는데 루이스네의 딸기만이 병충해를 입지 않았다. 작물들을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경작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가족은 전 해에 십일조를 바쳤노라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루이스는 “경계가 어렵던 그 시절에 잘 수확한 농작물은 우리에게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오는 축복의 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어요.”라고 회고했다. (“거룩한 십일조의 법”, 앤사인, 1981년 6월호, 69쪽)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오는 영적인 축복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또한 십일조를 바칠 때 이에 참여하는 개개인은 특별한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일조를 내는 것은 우리가 회생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헌납의 법과 해의 왕국의 보다 높은 율법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신앙 강화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과 구원을 얻는데 필

요한 신앙을 갖게 할 만한 권세를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34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주님께서 세상의 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있습니다. …현대 계시에는 지혜와 지식, 감추인 지식의 보화까지 받는 큰 축복도 약속되어 있습니다.”(“거룩한 십일조의 법”, 성도의 빛, 1991년 5월호, 4쪽)

지식과 지혜는 종종 계시의 형태로 온다. 남편이 가정을 의롭게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는 계시, 부모가 자녀들을 의로움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계시, 개인의 삶에서 평안과 확신을 갖고 결정하게 하는 계시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것들과 함께 그 밖의 영적, 세상적인 많은 축복들은 우리가 십일조를 바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비롯하여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기꺼이 바칠 때 오게 된다.

- 주님은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가? □



주님의 약속을 증명해 보임

디어도르 지 발만

그림: 그레그 도르켈슨

네 델란드 국세청이 보낸 파란 관공서 봉투를 집 문 앞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봉투를 집어 들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나는 그것을 뜯었다. 아니나다를까 그것은 세금 조사관이 보낸 세무서 방문 일정을 알리는 통지서였다.

이것은 최근에 내가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을 읽으면서 시작된 일련의 낙담스런 사건 중 하나였다. 나는 그 당시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십일조를 내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충만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었다. 나는 자신의 돈 두 푼을 성전 연보궤에 넣었던 과부가 받은 축복에 대해 생각했다.(누가복음 21:1~4 참조)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었으며 그분의 약속된 축복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했다.

나의 재정 상태는 절망적이었다. 작은 회사는 번창하질 못했고 주문은 거의 없는 데다가 빚은 많고 체납된 세금도 꽤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내지 않고 내가 "십일조"를 낼 자선 단체를 하나 택하여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로 했다. 나는 "만약 당신께서 나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십일조를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황은 더욱 나빠져 갔다. 그 뒤 그 문제로 아내와 다투기까지 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난 낡은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해야 하는데 당신은 자선으로 돈을 날려 버리는군요! 당신 마누라인 내게도 그 자선금 좀 내놓지 그래요?"

내가 무얼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의문스러웠다.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약속된 축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말라기에 있는 약속을 다시 읽기로 결심했다. 그것을 읽은

후 나는 "십일조"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십일조는 재정적인 투자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은 계산대에서 돈을 받고 물품을 내어 주시는 점원이 아님을 깨달았다. 내가 알게 된 십일조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얻겠다는 바람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에서 바쳐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고 상황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문 앞의 파란 봉투가 나의 마음을 다시 어둡게 만들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지정된 날에 세금 조사관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몇 분 간 대화를 나눈 후에 그 조사관은 이렇게 말했다. "난 당신이 정직한 분이고 세금을 내고자 하나 낼 형편이 안 되어 못 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세금을 탕감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5분 뒤에 사람들은 세무서 앞 보도에서 한 남자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올린 채 기쁨에 차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있던 얼마 후 나는 교회에 들어왔다. 여러 해 동안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십일조를 바쳐 온 지금, 나는 예언자 말라기가 기록한 대로 주님의 축복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한 축복으로 우리의 사랑과 충실함에 응답하심을 알고 있다. 진정 그분은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신다. □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가?”

마크 이 마틴슨

그림:리처드 홀

어렸을 때 내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소리내어 팝콘을 먹고 있었습니다.

“난 제리가 학교 기물을 파손했다고 친구를 밀고한 아이를 찾아 통로를 걸을 때, 학교 버스에 앉아 있었어. 제리는 애들 한 명 한 명에게 사실대로 고백하라고 으르고 있었어. 난 무서웠지. 정말 무서웠어. 왜냐하면 제리가 찾던 애가 바로 나였거든. 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까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 제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야.”

모든 애들이 다 팝콘 먹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제리가 안경 낀 깡마른 애를 움켜잡고 있었어.” 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네가 고자질했지? 그렇지? 하며 제리가 으박 질렀지.

“아니야, 난 안 그랬어.’ 그 애는 계속 아니라고 주장했어.

“하지만 제리가 믿질 않았지. 넌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 제리가 고향을 치자 그 마른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 어떻게 해야 하지? 난 안전하지만, 내가 한 일로 죄 없는 아이가 혼이 나고 있잖아.”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우리 아이들은 내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난 기도도 도움을 청했지.” 애들에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생각이 떠올랐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난 일어나서 소리쳤어, ‘그애를 놓아줘! 그애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그랬어!’”

아이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물이 아닌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들으려고 입을 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참모미이며 힘입니다.

우리 가족은 일요일 저녁에 갖는 이야기 시간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과를 준비하고 가족 각자 이야기거리를 준비해 옵니다. 이야기를 통해 삶의 역사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키고,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뿌리를 알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즐거운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

아내인 진과 나는 우리 애들이 우리의 경험을 정말로 듣고 싶어함을 알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간단한 것이었을지라도 이 이야기들은 우리 아이들의 추억을 만들어 주는 미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조상들의 생애 중 있었던 이야기도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역사는 함께 나눌 많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 조부님, 부모님, 숙부님, 숙모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희 증조할아버지께서는 군에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도착하겠다고 증조할머니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음 같은 추위 속에서도 밤을

새워 말을 달렸단다.”

“하루는 집 없는 사람이 와서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엄마는 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하루 분의 음식을 싸주어 보냈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애들에게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구한다면 우리나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님들이 경험한 간단한 일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경험한 다음 이야기의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난 울음을 그쳤지만 아버지께서 내 방으로 들어오실 때 내 베개는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지.” 저는 애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으셨어. 나는 아버지 역시 울고 계심을 보았어.

“‘애야,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네가 아직 어리다는 걸 깜박했나 봐. 아빠는 말이야, 네가 강아지를 잘 보살피길 원했어. 하지만 네게 그렇게 고향까지 치지 않았어야 했는데. 애야,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럼요, 아빠.’ 난 그렇게 대답했지.

“아빠는 나를 안으셨고 우린 둘 다 울고 있었어.”

아이들의 눈을 살펴본 후 나는 아이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너희는 탐내지 말찌니라”

브렌트 엘 탐



열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 즉 소유물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인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적 발전을 방해한다고 가르친다.

결혼 초기에 아내와 나는 가능한 한 자주 애리조나 북부의 작은 우리 마을에서 메사에 있는 성전으로 여행을 했다. 이러한 성전 방문 여행은 언제나 우리를 영적으로 고취시켜 주었으며, 작고 비좁은 집에서 세 아이들과 빈약한 수입에 의존해 사는 생활의 어려움을 잊을 수 있도록 기분 전환을 하게 해주었다.

성전 의식에 참여한 후 가끔 우리는 집으로 가면서 재미삼아 “탐욕의 여행”이라는 것을 즐기곤 했는데 그것은 매혹적인 크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 부자 동네를 한바퀴 차로 도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사치를 할 여유가 결코 없을 줄 알면서도 그 같은 호화스런 곳에 살면 어떠할까 하는 상상을 하였다.

비록 재미있는 환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여행은 때때로 우리에게 회미하게나마 어떤 좌절감과 불안감을 남겼다. 그 당시 우리는 이러한 집에 살아야겠다는 욕망으로 도적질하거나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탐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들이 탐내는 나약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비록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전혀 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느낌은 편안한 것이 못 되었다. 시내산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아내

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출애굽기 20:17)

분명 탐욕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탐을 내어 바라보거나 그것들을 갖고 싶다는 소망 이상의 것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의 자아를 만족시킬 것들, 즉 육체적인 매력이나 권력과 그 영향력이나 지혜와 선행에 대한 평판과 같은 것을 지나치게 바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너무나 집요하게 붙어 있어서 이미 우리 것이 되어 버린 것일 수도 있다. 주님께서는 마틴 해리

차로 부자 동네를 한바퀴 도는 것은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한 데서 오는 어떤 좌절감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우리가 삶의 호사스러움을 마음에 두었을 때는 종종 영생을 얻는 데 중요한 것에 눈이 멀게 됨을 알게 되었다.





스에게 “네 자신의 재산을 탐하지 말”(교리와 성약 19:26)라고 명하셨으며 대신 주님의 사업에 더욱 “아낌 없이 내어 놓으라”(교리와 성약 19:26)고 요구하시고 그 일로 그를 축복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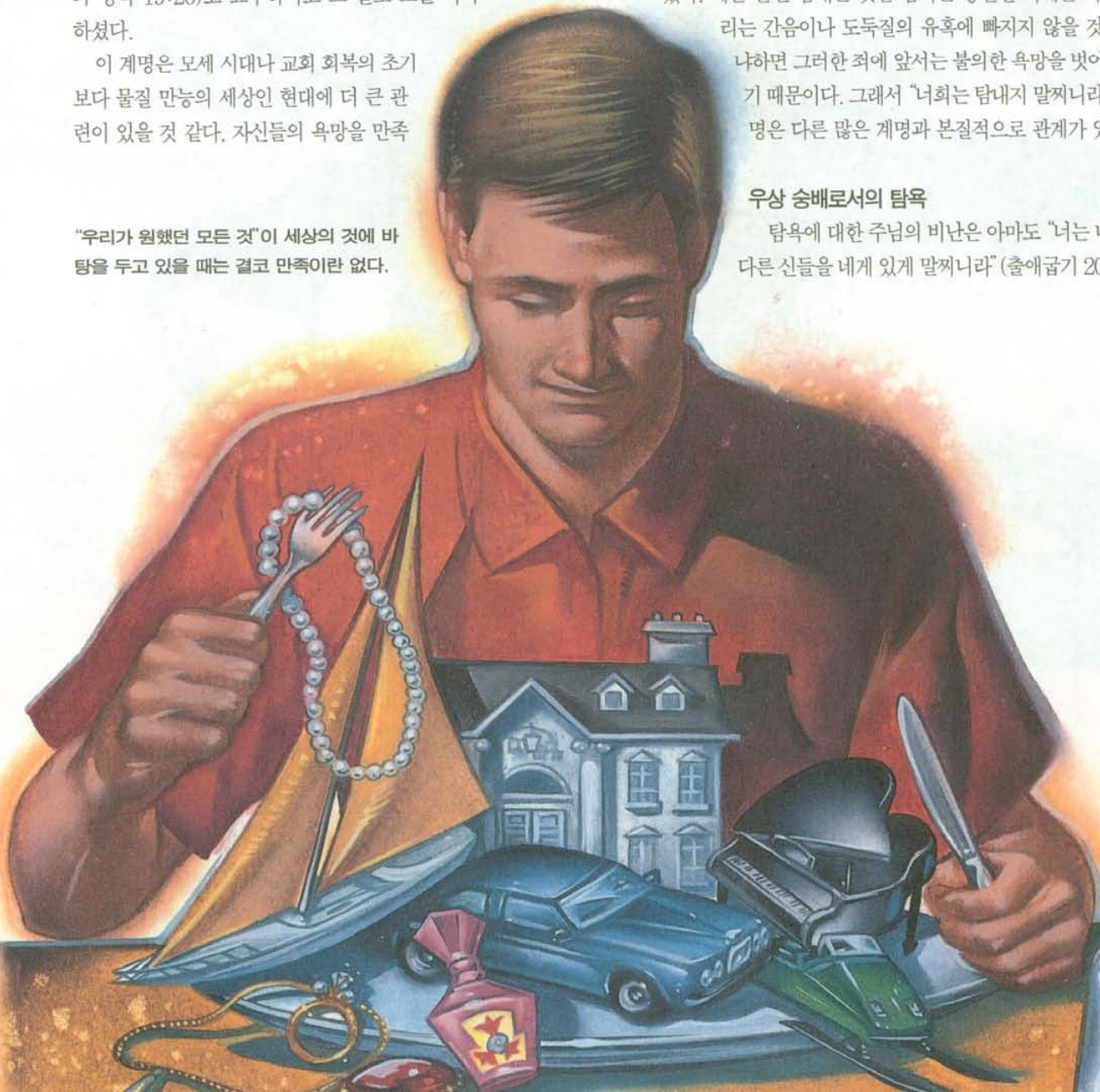
이 계명은 모세 시대나 교회 회복의 초기보다 물질 만능의 세상인 현대에 더 큰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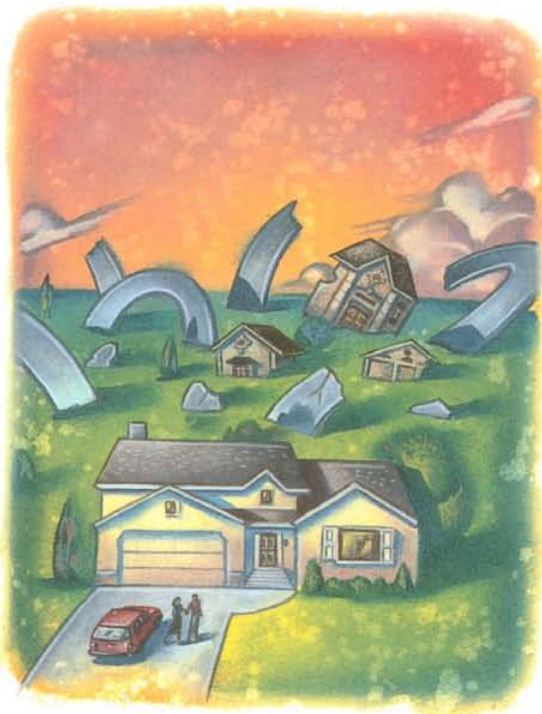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이 세상의 것에 바탕을 두고 있을 때는 결코 만족이란 없다.

시키도록 촉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열 번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은 많은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영적·육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탐내는 것을 삼가는 충실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간음이나 도둑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에 앞서는 불의한 욕망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탐내지 말찌니라”라는 계명은 다른 많은 계명과 본질적으로 관계가 있다.

우상 숭배로서의 탐욕

탐욕에 대한 주님의 비난은 아마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출애굽기 20:3)는 계





사치에 대한 욕망이나 사악한 탐욕을 극복할 때, 우리는 영생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것을 볼 수 있다.

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탐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권고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탐욕은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인 것이다. (골로새서 3:5 참조)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교도의 우상 숭배나 조각한 신상과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

(교리와 성약 121:35) 있어서 영원한 해의 왕국의 목표를 잊어버리는 위협에 빠질 수 있다. 불의한 탐욕은 하나님과 그의 왕국에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양분된 충성심을 낳는다.

구세주께서는 영원한 시각으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썩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마태복음 6:19~20)

그분은 또 이렇게 덧붙이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마태복음 6:24) 구세주의 편에 있다 하여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하여 매달리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되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자라나는 욕망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같이 "너희는 탐내지 말찌니라"라는 계명은 고통스런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소망의 증거이다. 비록 처음에는 비교적 순수해 보이며 다른 형태의 사악함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위협은 없다 할지라도 탐욕은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탐욕의

한 변형인 물질주의를 "우리 세대의 분명한 역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교회의 독신 성인 형제들에게", 앤사인, 1988년 5월호, 53쪽)

이 역병은 우리의 삶이 성신의 영향력을 받고 간직하여 성취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 "부에 대한 강박 관념은...부식시키고 파괴시킵니다." 라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했다. ("너희는 탐내지 말찌니라", 탬블리, 1991년 2월호 6쪽) 물질주의, 탐

욕, 질투, 시기에서 비롯된 영혼의 부패와 정신의 파괴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까지는 우리 스스로 인식조차 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탐내는 세상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얻는다 해도 우리의 욕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탐내는 정신은 항상 뭔가를 더 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은 우리를 만족을 모르게 만들고 언제나 사악한 뽀족탐으로 올라가게 만든다.

아내와 나는 새집을 지을 기회를 가졌던 몇 년 전에 이것에 관한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설계를 하고 집을 짓는 동안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가 전에 살던 집보다 더 편안한 멋진 집을 가지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기보다 오히려 더 얻을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현 가구를 손님이 자주 방문하지 않는 방에 넣고 손님을 접대할 방을 위해서는 새 가구들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현 텔레비전이 새 가구들과 어울리지 않아 텔레비전을 새것으로 바꾸어야 했다. 우리의 "필요"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이성을 되찾고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유혹에 굴복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로 우리는 사탄에게 세상적인 것을 취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합리화함으로써, 그것이 정당하며 멋지게까지 보이게 했다. 둘째, 우리는 세

상적인 것들을 획득하려는 생각에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회생했다.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일 때, 우리는 항상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조셉 비 워스틴 장로는 다음과 같은 주의를 주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에 우리 마음을 끌 만한 덫을 마련해 놓습니다. … 죄는 순수하게 시작된 행동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으며 적절하게 행한다면 합당한 활동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를 좁고 곧은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이탈하도록 하는 또 다른 유혹은 물질적인 소유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필요 이상의 아름답고 큰 집을 사서 장식하고 가구를 사며 정원을 가꾸는 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비록 그렇게 화려로운 생활을 할 만큼 충분히 축복 받았을 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나 궁핍한 형제 자매를 돕는 데 사용할 물자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74쪽)

사랑으로 강화함

열 번째 계명의 준수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을 키우고, 우리의 봉사를 더욱 생산적인 것이 되게 하고, 자비심을 늘림으로써 오게 되는 축복을 제공해 준다. 탐욕과 반대되는 이런 특성들은 우리가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할 때, 우리의 생활에서 꽃피울 수 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탐욕을 금하라.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같이 서로 물건을 나누어 주기를 배우라.”(교리와 성약 88:123)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탐욕을 버리게 하는 이 계명은 참된 제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승영을 위해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자리가 없다.

주님의 생애 중에 있었던 한 일화에서 이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한 청년이 구세주께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간략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대답을 시

작하셨다. 그 청년은 그러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지켜 왔다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마가복음 10:21~22)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계명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재산에 너무 집착했으므로 그 재물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막아 버렸다. 구세주를 따름으로써 오게 될 축복과 보상을 막은 것은 그의 부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중시한 영애와 위신이였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마가복음 10:23) 제자들이 물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후 예수님은 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하셨다.(마가복음 10:26, 요셉 스미스 역 참조)

왕국을 먼저 구함

경전은 우리가 탐내는 것들을 얻으려는 불의한 욕망만큼이나 강렬하고 의로운 노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 의로운 노력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와 균형으로 부지런히 구할 때 생겨난다. “너희는 헛된 것을 위하여 돈을 버리지 말며, 만족하기 못할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니파이서 9:51)라고 물문경의 예언자 야곱은 권고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로 나아와 멸하거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잔치하여 너희 영육이 기쁨 가운데 살찌게 하라.”(이사야 55:1~3 참조)

우리 생활에 탐욕을 뿌리뽑고 난 후에 우리는 세상적인 재물을 동경하고 갈망하던 옛생각을 하늘의 보화를 위해 헌신하는 열정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 야곱은 이와 같은 태도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으로 이를 특징지었다. 야곱은 또한 세상의 부를 가



사치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돈과 시간은 아마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장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하도록 권유했다.

“너희 형제 생각하기를 네 몸같이 하며, 만민에게 친절하며, 너희 재물을 값 없이 나누어 저들로 너희같이 부하게 하되,

“너희는 세상의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라야 너희가 구하는 바 부를 얻을 것이요, 선행을 위하여 이를 좇으리니, 헐벗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살피어 구제하게 되리라.”(야곱서 2:17~19)

오늘날에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옛 계명인 “너

희는 탐내지 말찌니라”에 말일성도들에게 주어진 계명을 보충할 필요가 커졌다. “내 계명을 지켜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세우기를 힘쓰라.

“재물을 구할 것이 아니요 다만 지혜를 구하여야 하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니, 그리하면 부한 자가 되리라. 보라, 영생을 가진 자 그가 곧 부자니라.”(교리와 성약 6:6~7)

세상의 탐욕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세상적인 욕망을 강력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대체시킬 때, 우리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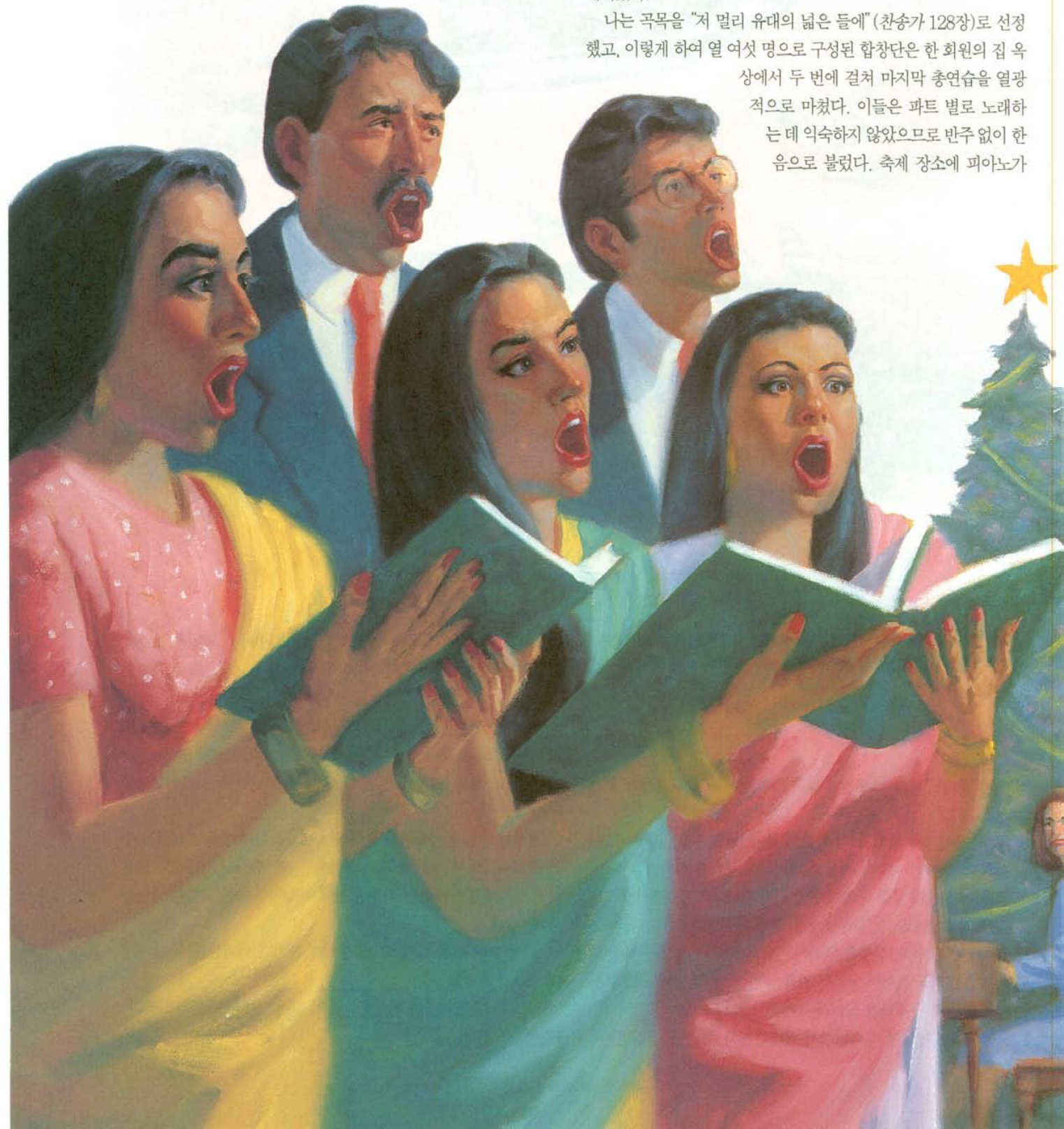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5~6) □

우리의 태버나클 합창단

진 피 로울러
그림: 로버트 앤더슨 맥케이

1993년 크리스마스 때 나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곳 벵갈로 지부의 회원들은 벵갈로에서 열리는 연례 합창 축제에 참가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도착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던 12월 첫주에 나에게 합창단 조직과 합창 지도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유타에서 온 동반자인 애니 크리스천 자매와 나는 이 축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도와 주겠다고 승낙을 해버렸다.

나는 곡목을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찬송가 128장)로 선정했고, 이렇게 하여 열 여섯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한 회원의 집 옥상에서 두 번에 걸쳐 마지막 총연습을 열광적으로 마쳤다. 이들은 파트 별로 노래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반주 없이 한 음으로 불렀다. 축제 장소에 피아노가



있을 때는 내가 지휘 대신 피아노를 치기로 했다.

드디어 연주 날자가 되었다. 뱅갈로 시내까지 타고 간 택시에서 내린 우리는 큰 시청 건물 앞에 드리워진, "크리스마스 음악 축제"라고 써어진 큰 현수막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어리벙벙한 채로 우리는 넓은 계단을 올라가 홀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의상까지 갖춘 합창단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축제는 실로 큰 규모의 축제였던 것이다!

우리는 급히 프로그램 인쇄물 하나를 얻었다. 거기엔 몇몇 교회와 초급 대학, 그리고 대학교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찾아보던 우리는 "엘 디 에스 합창단(물몬의 합창단)"이라 적힌 것을 보고 숨막힐 정도로 놀라고 말았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쩔 줄을 몰랐다.

우리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했다. 나는 동반자를 돌아보고 말했다. "자매님이 지휘를 해야겠어요!"

동반자가 말했다. "내 평생 한 번도 지휘를 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그냥 미소를 띤 채 8자 모양으로 팔을 흔들며 자신만만하게 보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순서가 되어 막이 열렸을 때 나의 동반자는 연주 단상에 배열해 서 있는 우리의 인도 "물몬의 태버나클"의 지휘자가 되어 있었다. 앞줄에 아름다운 사리(인도

전통 의상)를 입은 일곱 명의 자매들과 뒷줄에 선 정장 양복을 입은 아홉 명의 형제들이 전부인 합창단이었다. 크리스천 자매는 나비넥타이까지 맨 손색없는 당당한 지휘자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나가 피아노에 앉았다. 동반자가 손을 들어 올려 8자 모양으로 젓기 시작했고 나는 첫음을 쳤다. 합창단과 피아노에서 나온 소리에 너무나 놀란 나는 거의 피아노를 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날 밤 우리 합창단은 진짜 태버나클 합창단이 노래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었다.

나는 그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며 그 곳에는 분명 우리의 작은 합창단과 함께 노래하는 천사의 합창단이 있음을 알았다. 마지막 음절이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뒤이어 관중석에선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막이 내리고 우리는 기쁨에 찬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의 우승자는 누구였겠는가? 우승자는 바로 우리였다!

그날 밤 우리가 불렀던 캐럴의 4절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 "온 땅의 백성들 다 나와서 이 기쁜 구속의 노래부르세. 주께 영광...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있으리라." 보였든, 안 보였든 많은 음성들이 하나가 되어 그날 밤 인도의 뱅갈로에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의 말씀



왕국을 건설함

“우리 모두 왕국을 건설하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선교사를 돕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물어 볼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도와 주고 영의 양식을 먹이며 그를 격려하고 향상시킬 때, 여러분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성실한 남녀는 성실한 자녀를 가지게 되고 그 자녀들은 성실한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라서 이 놀라운 과정은 계속되게 됩니다.” (에콰도르, 키토 노변의 모임, 1997년 8월 12일)

십일조의 축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은 언제나 축복된 일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십일조에 대한 큰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십일조를 바칠 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때라도 십일조를 내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혼자서 그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감독이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며 그분만이 그 약속을 이행할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지역 대회, 1997년 8월 10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읽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읽어 주십시오. 신약에 있는 그 이야기를 읽어 주십시오. 몰몬경에서 그 이야기를 읽어 주십시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바쁘겠지만 그 일은 자녀들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큰 축복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지상에 사셨던 오직 한 분의 완전한 분이셨던 세상의 구세주에 대한 큰 사랑이 자랄 것입니다. 자녀들이 남자와 여자로 성장해 갈 때, 그들의 삶에서 그분은 실제로 살아 있는 존재요, 위대한 속죄의 희생을 하신 분이 될 것이며 새롭고도 놀라운 의미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지역 대회, 1997년 8월 10일)

요셉 스미스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찬송가,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을 부릅니다. 그 찬송가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숲속에 들어가 빛과 이해를 간구했던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아들이 그에게 나타나

이야기했던 바로 그 요셉 스미스 말입니다. 위대하고도 놀라운 이 사람은 기적의 책,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에 있는 계시를 우리에게 갖다 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일때 그 모든 것은 사실이며, 그래서 저는 그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가르치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어머니께서는 조그만 책을 한 권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소를 모는 소년에서 예언자로’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요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였고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읽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늙었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도 제게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파라과이, 아순시온 지역 대회, 1997년 8월 10일)

개인의 덕행

“저는 개인적인 미덕의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활기차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즐겁고 재미난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도덕성이나 정직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는 것은 상스런 말이나 단정치 못한 복장이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이러한 파괴적인 악을 멀리하여 설 수 있으며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노

력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1997년 유타 주 의회 의 사당에서 열린 개척자 기념 전시회에서 행한 말씀)

가족에 대한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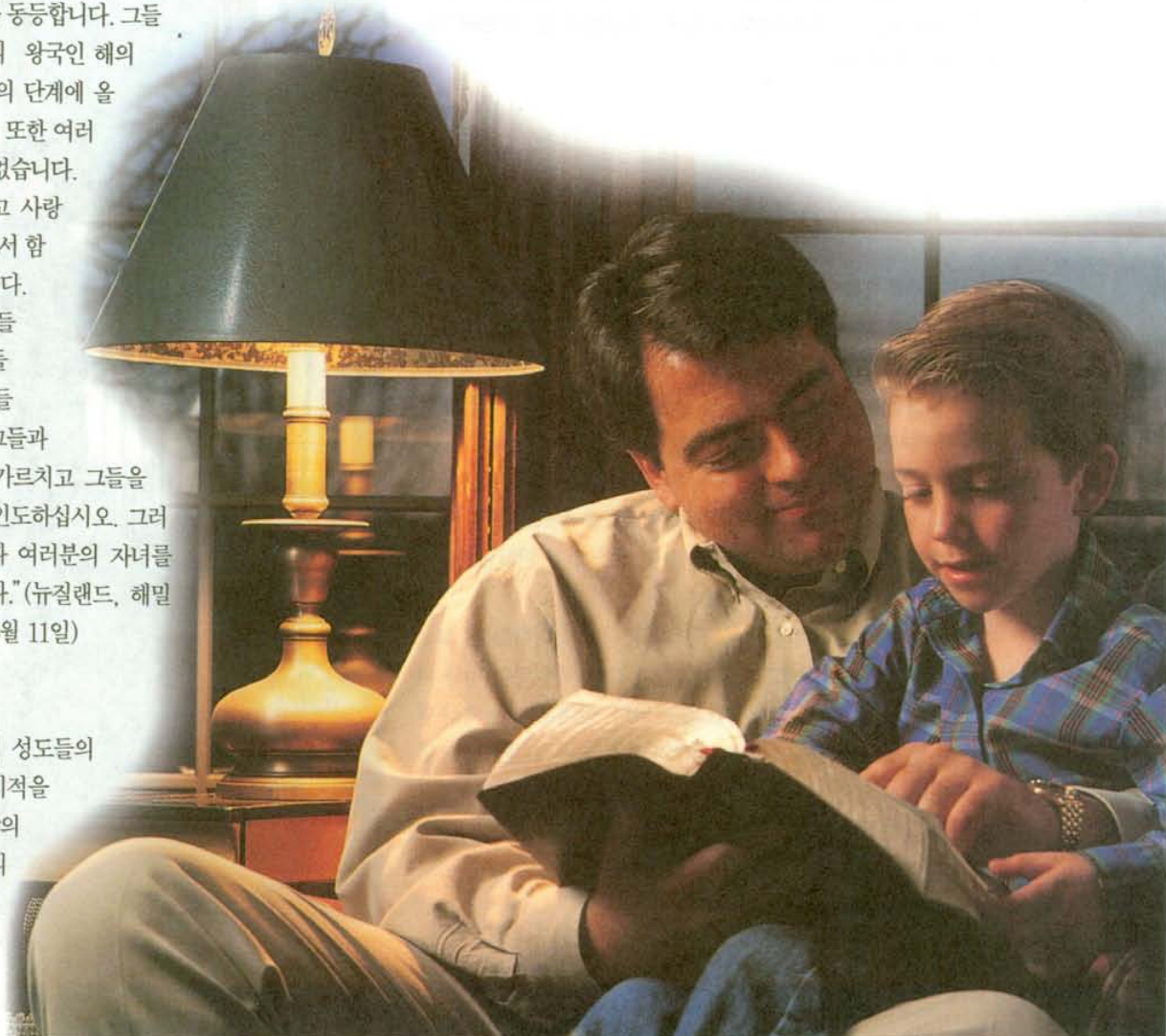
“형제 여러분,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은 여러분과 동등합니다. 그들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인 헤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의 단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또한 여러분 없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동반자로서 함께 나란히 걸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대하십시오. 그들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과 의논하십시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모두 축복하실 것입니다.”(뉴질랜드, 해밀턴 지역 대회, 1997년 5월 11일)

변화된 삶의 기적

“저는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기적을 봅니다. 이 교회는 희망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교리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문자 그대로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돕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서 훌륭하고 착실하며 생산

적인 어떤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만족스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의 가장 큰 만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로스앤젤레스 세계 문제 협의회에서 말씀을 가진 후 가진 질의 응답 시간, 1997년 3월 6일) □



아름다운 도시



위쪽: 나부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도시가 그 이름이 뜻하는 것과 같은 요셉 스미스 시대의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원한다. 오른쪽: 청남 청년들은 크리스마스 때 개척자들이 사용했던 물품들로 장식하면서 “아름다운 도시”를 준비한다.

몹시도 추운 2월의 밤이었다. 미시시피강은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 파랗고 하얀 고속 도로 같아 보였다. 뚝뚝 얼어붙은 강에는 나룻배도 짐배도 없었다. 정말 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얼어붙은 강의 두꺼운 얼음은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게 했고 어쩌면 멀리 떨어진 독까지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부시는 캄캄한 미시시피강의 독 위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네 명의 사람들은 강기슭에서 얼음을 두드려 보며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과연 건널 수 있을 만큼 단단할까? 짐마차를 끌고 지나가는 것이 가능할까?

카일라 워커는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 강가에 다다랐다. 그들 친구인 팀 맥코믹도 얼음 위로 발걸음을 옮겼다. 카일라는 얼음 위를 지나는 것이 재미있었지만 약간 겁도 났다. 안내를 맡은 제리 맥레오드는 발 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팔을 벌려서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미 경고한 터였다.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얼음 위에 있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얼음 아래로 빠질 경우 물살에 밀려 떠내려간다고 해서 두려웠어요.” 라고 카일라는 말한다.



만들기

재닛 토마스



사진 촬영: 제드 폴 및 재닛 토마스

150년 된 쿠키 커트기로 만든 생강밀 쿠키가 스타다드 주석 가게를 장식해 놓고 있다. 삽입 사진: 나부 방문자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 장식 전등의 영킨 전깃줄을 풀고 있다.

카일라는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다. 정확히 150년 전 그 달에, 첫 번째 개척자들은 그들이 사랑했던 아름다운 도시, 언덕 위에 하얀 성전이 빛나고 있던 나부시를 뒤로한 채 얼어붙은 미시시피 강을 건넜다. 지금 카일라와 아버지와 친구 한 명은 얼음 위를 건너는 데 필요한 인가를 받고 개척자의 출발을 재현하고 있는 중이었다.

“난 바지를 세 개나 꺼입었고 목 위까지 올라오는 셔츠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그 다음엔 긴 코트와 모자, 목도리와 장갑도 끼었고요. 양말 두 켤레와 하이킹 구두를 신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추웠어요.”라고 카일라는 회상한다. “기온은 영하 30도였어요. 그래서 얼음이 그렇게 두껍게 얼었나 봐요. 45센티미터 두께의 얼음이었어요. 얼음 위에는 깨진 금들이 보였지만 얼음 속은 워낙 두껍게 얼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통 얼음뿐이었어요.

“사방은 캄캄했고 미끄러웠지만 우리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얼음 위에는 눈이 있어 미끄러지기 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몇 군데 얼음을 깨뜨려 발바닥이 힘을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난 멈추지 않고 건너고 싶었습니다. 건너는 데 걸린 시간은 18분 30초였어요.

“맥레오드 형제의 부인이 큰 차를 가지고 강 반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난 방 장치와 따뜻한 초콜릿이 기다리고 있는 차에 타니 너무나 좋았어요. 조상들이 건넌 똑같은 강을 건넜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근사했어요. 단지 그들은 긴 드레스를 입고 자녀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아팠겠지만요. 그들은 교회를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강을 건넜지요. 그들이 지냈던 간증은 얼마나 강했었어요! 나는 망설이며 갔을 거 같아요. 나는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난 그냥 기다리면 안 되나요?’ 오래 전에 조상들이 망설임 없이 했던 그 행동이 나의 큰 간증이 되었답니다.”

카일라는 열 일곱 살로 일리노이주 나부 스테이크의 회원이다. 카일라와 와드의 다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세운 개척자에 대한 이야기를 최소한 천 번은 들어 왔다. 그들은 나부가 “아름

다운 도시”를 뜻함을 모두 알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이 도시의 모든 거리, 모든 집들, 모든 꽃이며 풀을 실제로 알고 있다. 이 곳에서는 꽃을 가꾸고 잔디를 깎는 일이 많은 봉사 활동이 되고 또 일자리도 많이 제공하게 된다. 이 청소년들은 다시 한 번 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돕고 있다.

오늘날의 아름다운 도시, 나부

미시시피강이 굽이치며 흐르는 곳에 위치한 나부시는 약 1천 명 남짓한 주민들이 강 위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 작은 도시이다. 150년 전 그 당시에 나부는 1만 명도 넘는 주민들이 사는 도시였다. 현재의 미시시피강 옆, 풀이 많은 평평한 곳에 자리한 옛 거리는 많은 방문객들로 차 있다. 그 지역의 빨강 벽돌로 만들어진 개척자 집은 재건축되어 있으며 수리되고 있는 중이다. 청소년들이 크리스마스 때 김볼의 집 장식을 거들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곳이 그 지방의 와드에 속한 한 회원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 그 집은 바로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히버 시 김볼(1801~1868)의 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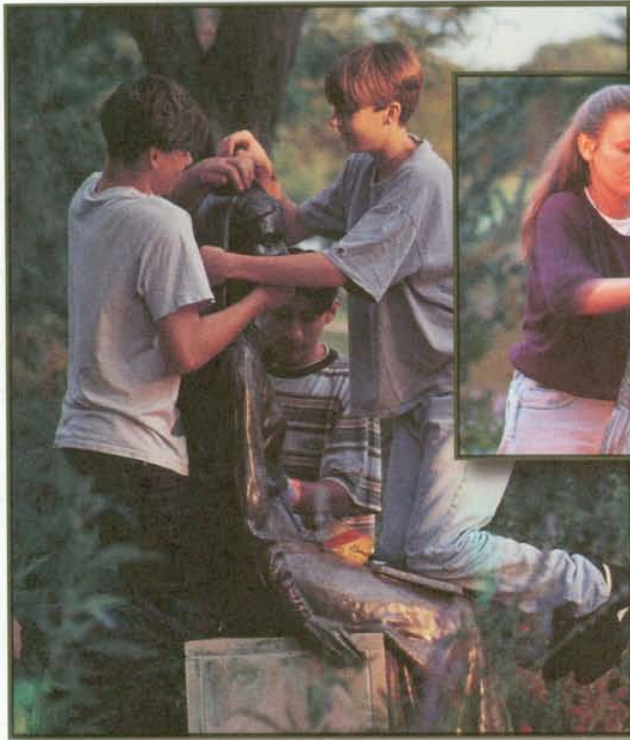
오늘날에도 초창기 정착민들의 체취를 느끼며 그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 보면서, 또 자주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예언자의 면전에서

나부의 10대들은 예언자의 면전에 있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지난 번에 교회 대관장단 두 분이 나부를 방문했었다. 열 일곱 살 난 터스틴 파웰은 힐클리 대관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예언자께서 말씀하러 오셨을 때, 저는 그분께 정말로 잘 집중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조용했으므로 모두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답니다. 놀라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열 여섯 살인 트래퍼스 파웰도 덧붙여 말했다. “여러분도 그 때 그 곳에 계셨다면 정말 훌륭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나부의 청소년들이 봉사할 때면 그 도시를 세웠던 개척자들이 남긴 봉사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위쪽: 나부 방문자 센터 근처 정원의 동상들을 닦아 빛을 내고 있다. 뒷면: 청소는 청남들에게는 1년 내내 일할 거리가 되어 준다.



가한다. 열 여섯 살 난 힐러리 홀은 "이 연극은 서부로 가는 개척자에 대한 것으로 정말 멋진 행사라고 생각해요. 이것으로 개척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한다.

그 이야기는 또한 개척자들이 옛 나무시를 두고 떠나는 것도 설명하고 있다. 열 다섯 살인 사라 해색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연극의 등장 인물들이 집 짓는 것과 그 집들을 짓기 위해 치른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힘들여 지은 집을 두고 떠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지요. 그 집들은 아직도 남아 있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희생은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희생의 기념비

모든 10대들은 특별한 건물 하나만을 개척자들이 나무를 떠난 후라도 파괴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들은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높게 세워진 성전을 마음속으로 그려 본다. 오늘날 나무 성전 부지 근처 마을 전체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는 저수탑이 있다. 그런데 성전탑이 저수탑보다 10미터나 더 높아 그 언덕 위의 성전이 얼마나 인상 깊게 보였겠는가를 쉽게 상상해볼 수 있다.

열 일곱 살의 메리 해색은 "난 그곳에 있는 성전을 상상해 봐요.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라고 말한다.

"그런 큰 도시였을 거예요. 물문들은 성전 가까이 살고 싶어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세인트 루이스 성전이 있어서 거기가 우리에게 낯가장 가까운 곳이지요."라고 열 세 살 난 코리 콘드런은 말한다.

"전 개척자들처럼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난다면 정말 기분 나쁘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요셉의 도시

나부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매년 여름 요셉의 도시 연극제에 참

모든 봉사의 행동

150년 전의 젊은들이 훌륭한 명분으로 봉사하고 싶을 때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날라다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나부의 청남들 또한 정기적인 봉사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여름, 이곳에 와서 이들의 와드에 참석하는 방문객들은 수천 명으로 점차 그 수가 늘어가고 있다. 주일 아침마다 청남들은 한 시간 일찍 예배당에 도착해서 수백 개의 의자를 준비해 놓고 32개의 성찬기를 준비한다.

의자 놓는 것은 큰 기술이 없어도 되지만 예배실 밖의 교실이나 복도를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 성찬을 전달하는 것은 재치와 세심한 계획이 요구되는 일이다. 모든 집사, 교사, 제사들이 성찬을 전달해야 한다. 이들은 이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지쳐서 넥타이나 윗도리를 벗어 버리고 싶지만 사람들이 자기네 와드에 돌아와서 '나무 소년들이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걸 알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하지요."라고 열 네 살 난 마크 해색이 말한다.

모임을 마친 후에는 수백 개의 의자들을 밖으로 들어낸다. 다음 주에 있을 요셉의 도시 공연을 위해 의자를 정돈해야 한다. 청남들은 그렇게 많은 의자를 나르고 접고 퍼면서 청녀 한 명이 "우리도 의자 나르는 걸 돕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는 농담삼아 약간의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

청남들이 놀리기 시작한다. "그래, 남자들은 의자를 놓는 책임이

있고, 여자들은 의자에 앉을 책임이 있지. 스테이크의 모든 사람이 나무 와드를 의자 조립 와드라 부르는 걸 알고 있어."

나무의 청녀들 역시 일이 있다. 그들은 방문자 센터에 있는 동상들이 빛이 나게 깨끗이 닦여 있나 살핀다. 장식들을 옮기고 동상들이 멋지게 보이도록 유지하기 위해 왁스를 입히는 것도 많은 일손이 필요한 일이다.

뒤돌아 봄

나무는 평화스런 곳이다. 10대들에게는 때때로 약간은 너무 조용한 곳이다. 예외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몇 년 전 교회 영화인 유산을 촬영할 때였다. 이 곳에 사는 청소년 대부분이 영화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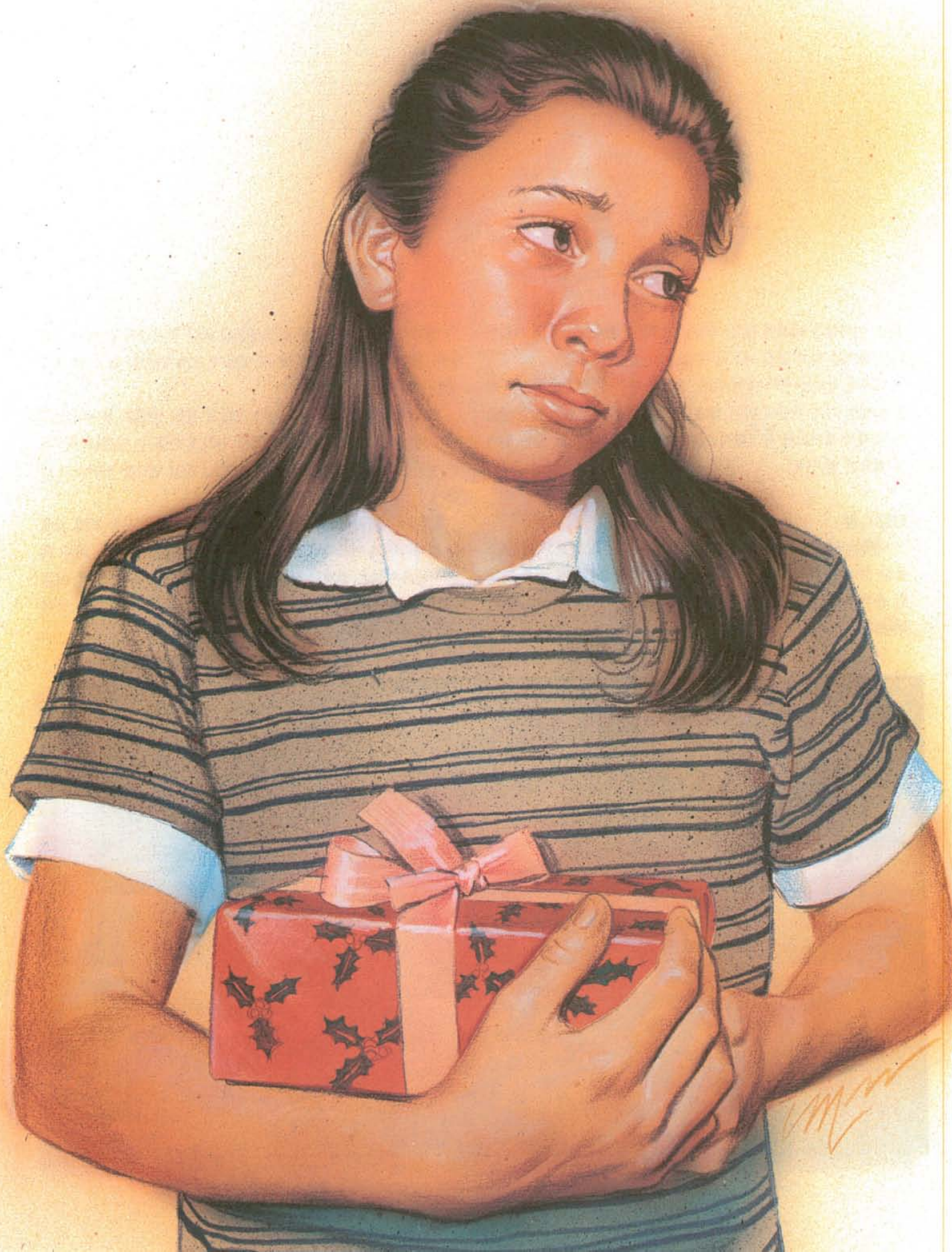
"저는 교회 영화 유산이 저의 간증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의 주된 이야기는 제 조상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라고 열 여섯 살인 카일 워커가 말한다.

그러나 이들 10대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무엇이 그들에게 당장 편안한 집을 두고 광야로 나가게 만들 수 있겠는가? "저는 연예자가 시킨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라고 앤드류 커어스가 말한다.

많은 개척자들이 강가의 마차 행렬 속에서 얼음 위를 건널 차례를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도시를 돌아보고 눈물을 흘렸다. 나무 와드의 젊은이들은 언제나 뒤를 돌아본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아름다운 도시뿐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그 도시를 세웠던 사람들이 남긴 희생과 봉사의 유산을 보고 있는 것이다. □





선물교환

질 테일러

그림: 로저 모츠크스



앤, 리사, 비키, 그리고 조앤은 우리 교회의 회원은 아니었지만,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이 이 곳으로 이사 왔을 때, 우리 동네에 말일성도 소녀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저에게 잘해 주고 그들의 그룹에 넣어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곧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유행하는 옷과 남자 아이들이 우리의 화제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다소 다르게 대하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무시했지만 그래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면 갑자기 속삭이던 것을 멈추고는 자기네들끼리 더 가깝게 모였습니다. 조앤과 비키가 단짝인 것 같았고 앤, 리사, 폴라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저는 자주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금요일 밤에 앤의 집에서 파티가 있다는 것을 안 저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네가 너무 바빠 거라고 생각했어"라는 말이 저를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원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곳에 도착했을 때, 한 친구가 저에게 어떤 애가 저에게 매우 화가 나 있으니까 제가 없는 편이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선물은 원했지만, 저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정 그들에게 교훈을 가르칠 기회였습니다.

*이름들은 가명입니다.

성탄절이 되었고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성탄절 선물 교환을 계획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서로 이름을 써넣고 그것을 뽑았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뽑아 주었는데, 저는 폴라의 선물을 사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이름을 써넣어 주지 않아 저에게 선물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제가 너무 바빠서 파티에 올 수 없을 테니까

파티를 갖는 집 현관 앞에 제가 준비한 선물을 놓아 두고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화가 났는지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잘 기억할 수 없지만, 저는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모든 비열한 방법을 생각하려고 애썼던 것만은 똑똑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한 후, 비열하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과 그들의 파티를 무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폴라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이 제게 불친절하게 행동한 것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제가 하찮은 일을 극복하고 용서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폴라에게 아름다운 것을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예쁜 포장지로 작은 신발 상자의 안과 밖을 포장했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보물 상자를 채울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리본으로 장식한 우아한 향수병, 작은 드라이 플라워가 들어 있는 소형 꽃병, 또 다른 드라이 플라워로 된 인형용 부케가 그것들이었습니다.

선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쁜 편지지에 제가 손으로 정성들여 쓴 좋은 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각각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부모의 선물

리본으로 묶은 다음,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포장된 덮개를 덮고 어울리는 리본으로 상자를 묶었습니다. 전 파티가 열리고 있는 앤의 집으로 걸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는 돌아왔습니다. 전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소녀들과 다시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절대 제게 불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치면 언제나 친절한 인사로 서로 아는 척했지만, 범취 서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 대학을 가기 위해 멀리 떠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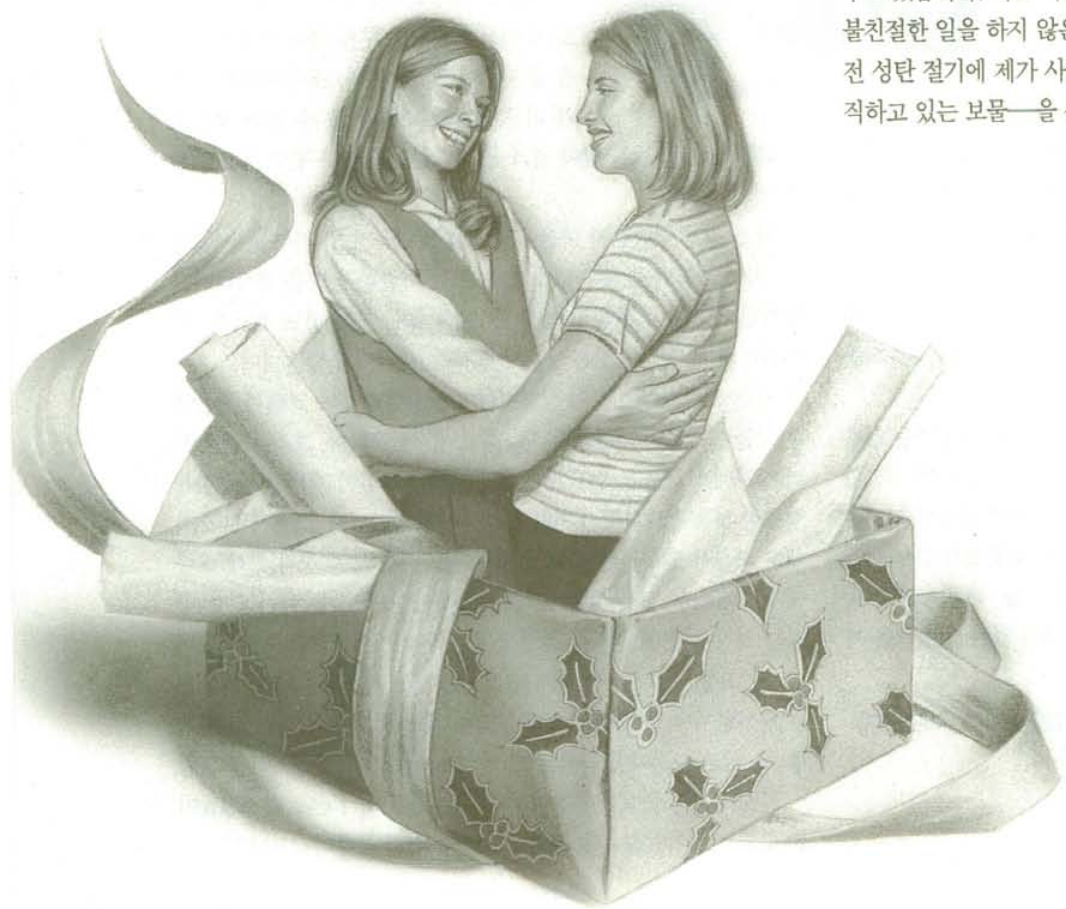
그해 방학에 전 집에 돌아왔고 그 지역 전문대학에 다니는 말일성도 학생들이 신학 연구원 대학부에서 친목회를 계획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멀리 떠났다가 방학을 맞이해 돌아온 학생들은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제가 그 곳에 도착했을 때, 전

폴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팔로 저를 감싸안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 나는 몇 주 전에 침례 받았고 신학 연구원 대학부 수업을 듣고 있어.”

“우리가 중학교 때 너에게 너무 비열했었고 그래서 난 마음이 무거웠어. 정말 미안해! 난 네가 날 위해 만들어 준 상자를 좋아했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난 그 시들이 정말 좋아. 영적이고 아름다운 시들이야. 그 동안 그 시들을 읽고 또 읽었어.”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알려 드릴 굉장한 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한 즉시 보상이 돌아오지만, 때로는 몇 년 동안이나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의 영향이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 영향을 준다 해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제가 화난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불친절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 성탄 절기에 제가 사랑의 선물—지금도 폴라가 더욱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보물—을 선택한 것이 매우 기쁩니다. □



몇 년 후에 눈물을 머금고 폴라는 그 선물이 그녀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저 스스로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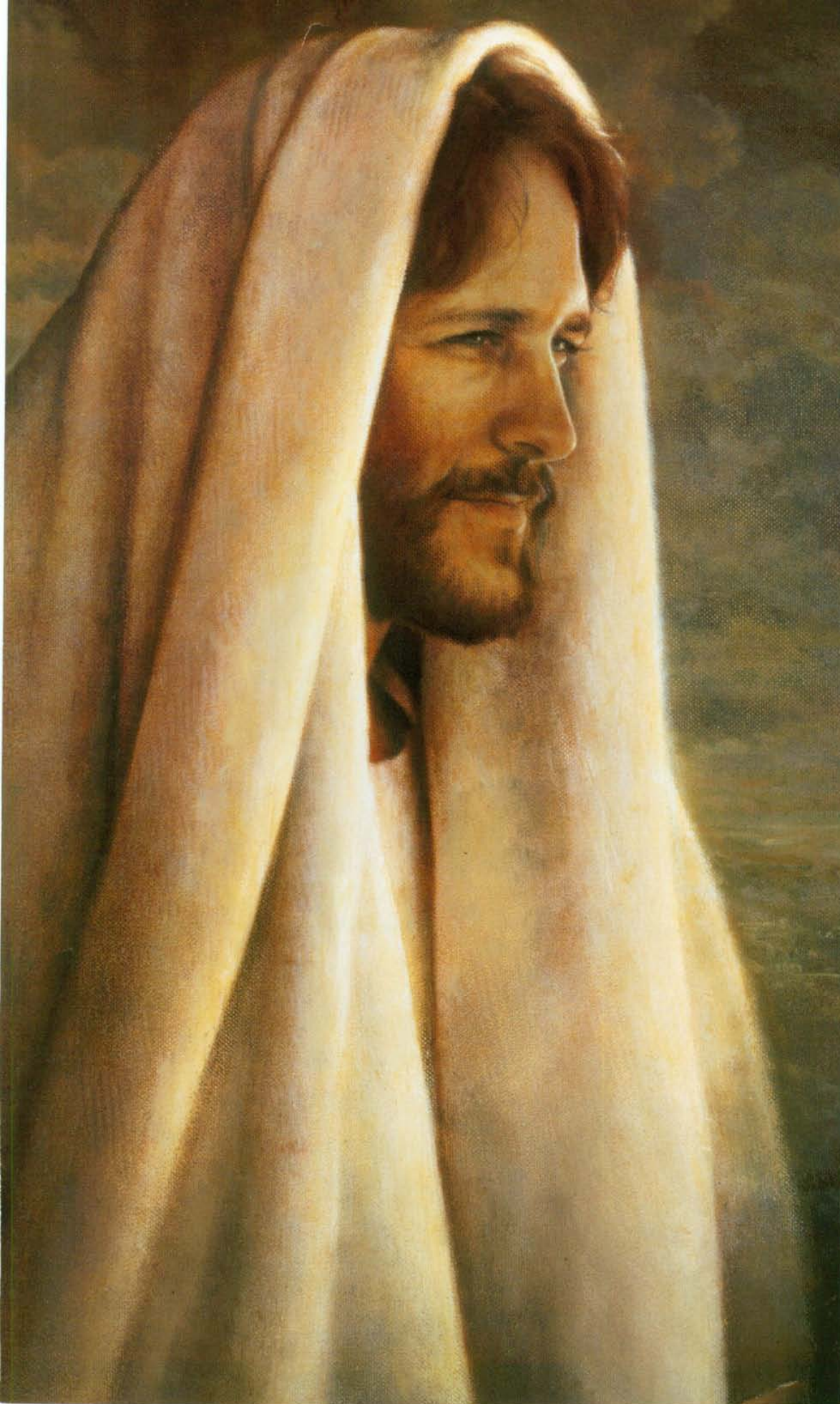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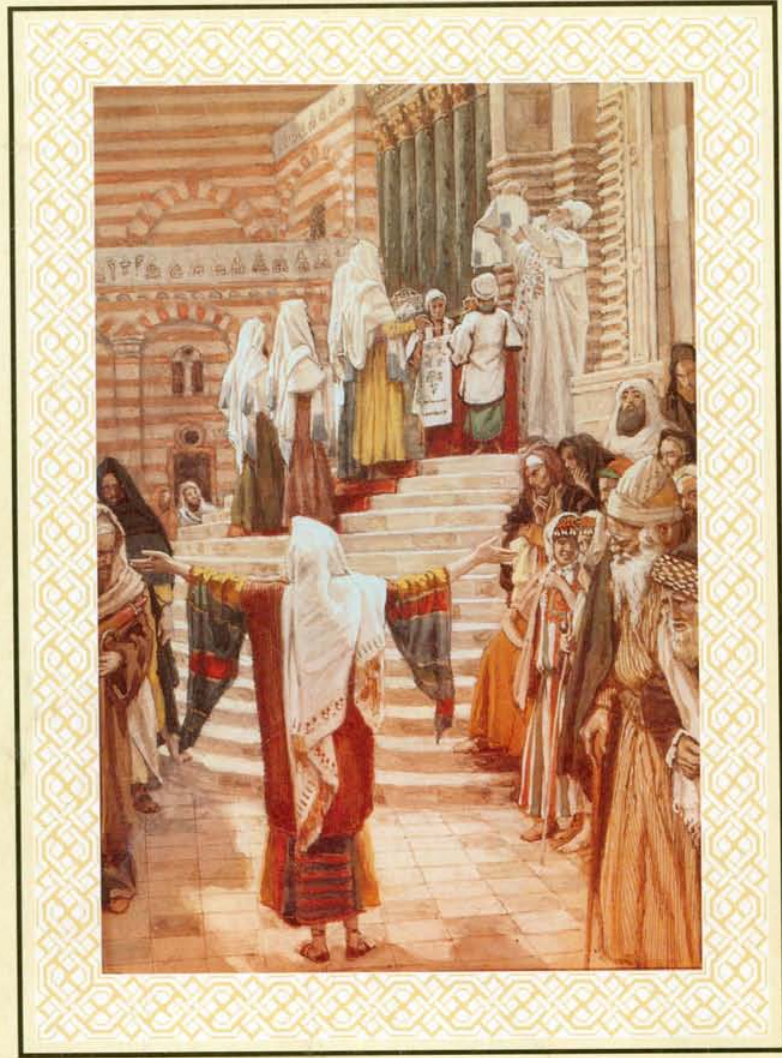


그림: 그레그 케이 올슨
자상한 의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시고,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바쳐진
흠 없는 어린 양인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신물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든 비 힝클리,
“감사의 계절” 성도의 벗
1997년 12월호, 5 ~ 6쪽)



“**[시]** 르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재여 이제는 …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 이는 …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27~32)